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1-25-08

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2015 No.2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ement Cooperation

2015년 제2호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자의 글

오늘날 국제사회는 수원국에 대한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공여기관 원조의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는 2009년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로서 '국제투명성지수(IATI)'를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한국ODA의 투명성 및 효율성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한다는 국내외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Post-2015 정상회의에서 IATI 가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 정부부처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제언을 바탕으로 IATI 가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국제개발협력지 2호에서는 'IATI가입과 원조효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IATI 및 ATI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 현황을 알아보는 동시에 원조데이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데이터혁명(data revolution)' 논의 역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외교부, KOICA 및 시민단체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호의 첫 번째 원고인 '**원조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IATI 가입(민지혜)**'에서는 국제원조투명성지수(IATI)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가 IATI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IATI 가입을 위한 외교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Post-2015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혁명(김찬유)**'에서는 Post-2015에 대비하여, 데이터혁명(data revolution)을 중심으로 원조데이터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KATI)(한재광)**'에서는 이러한 원조투명성 증대를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ODA Watch가 한국의 원조투명성 현황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위해 PWFY의 ATI를 근간으로 개발한 '한국 원조투명성지수(KATI)'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섹터부문의 '**기후변화와 물 위기: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구상(이지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물위기에 대한 현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한국 ODA의 적극적인 노력 현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KOICA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관련 ODA를 소개하면서 향후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의 기대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의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박수영, 김수진)**'에서는 개발협력부문에서의 성과관리기법으로서 널리 활용되어온 '논리모형모델(Logical framework)'의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20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기법의 정의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관리도구의 등장이 우리나라 원조사업 추진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원조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 현황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해보고자 기획된 이번 2호가 2015년 9월 한국의 IATI 가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향후 한국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KOICA 연구개발팀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I. 개발협력 이슈

1. 원조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IATI 가입 ····· 11
   민지혜 (외교부 개발정책과 외무사무관)

2. Post-2015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 21
   김찬유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3.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KATI) ····· 37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

II. 섹터

1. 기후변화와 물 위기: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구상 ····· 75
   이지은 (KOICA 기후환경팀 과장)

III. 평가

1.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 ····· 91
   박수영 (KOICA 연구개발팀 팀장)
   김수진 (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Ⅳ. KOICA 개발협력 자료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 113

2.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 구독 목록 ····· 114

3. KOICA 2015년 3월~2015년 5월 발간물 목록 ····· 116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 117

5.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 118

6.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 119

I

개발협력 이슈

1. 원조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IATI 가입
민지혜 (외교부 개발정책과 외무사무관)

2. Post-2015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김찬유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3.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KATI)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

원조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IATI 가입

민지혜 (외교부 개발정책과 외무사무관)

목 차

I. 서론
II. 투명한 원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IATI
  1. 아크라 세계개발원조총회와 IATI 출범
  2. IATI 개관
    1) IATI의 비전 및 정보공개 기준
    2) IATI의 구성 및 활동
III. 우리나라의 IATI 가입
  1. IATI 가입의 기대 성과
  2. 현황 및 향후 계획
IV. 결론

Ⅰ. 서론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은 수원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의 공적원조를 받았다. 한국은 이러한 대외 원조 및 국내재원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 지위를 획득하고, 200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이어 2010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은 전후 최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개발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대외 원조 규모도 지속 증가하여 ODA 지원규모는 1993년 1.1억 달러에서 2013년 17.5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약 16배의 증가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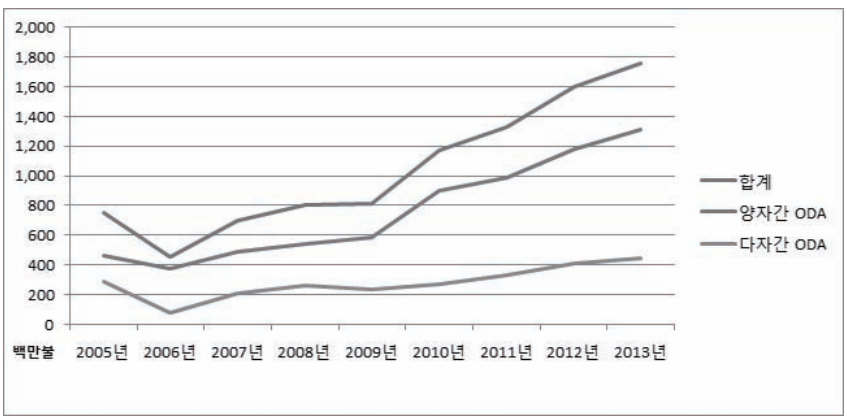
〈표 1〉 한국의 ODA 지원실적

양/다자	199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11.56	752.32	455.25	696.11	802.34	816.04	1,173.72	1,324.59	1,597.45	1,755.38
양자간 ODA	60.12	463.30	376.06	490.52	539.22	581.10	900.56	989.57	1,183.17	1,309.58
다자간 ODA	51.44	289.01	79.19	205.59	263.12	234.94	273.15	335.02	414.28	445.80

(순지출기준, 백만불)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DB

〈그림 1〉 한국의 ODA 지원 실적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DB

이러한 ODA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국회, 시민사회, 학계 등으로부터 ODA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다. 이와 더불어, OECD,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원조의 절대적인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공된 원조가 효과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여국의 투명한 원조 정보 공개로 수원국의 원조 예측성이 높아지면 수원국이 주인의식(national ownership)을 가지고 개발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원조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은 특히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투명성의 증가는 정부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주인의식 및 개발 결과를 강화한다(네팔, 2013 IATI Annual Report)."
"원조 흐름의 투명성은 정부가 대내외 모든 재원을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르완다, 2014 IATI Annual Report)."

중진 공여국으로서 우리 개발협력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조 하에 우리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IATI의 출범 및 활동을 중심으로 IATI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 정부의 IATI 가입 결정 및 관련 준비 내용을 소개한다.

II. 투명한 원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IATI

1. 아크라 세계개발원조총회와 IATI 출범

2008년 9월 아크라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개발원조총회(the Thi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3))는 결과문서인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 상의 투명성 관련 공약 이행 지원을 위해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은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추진키로 하고, 자발적 · 다주체(multi-stakeholder) 이니셔티브로서 2009년 IATI가 출범하였다.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책무성 및 투명성 제고(We will be mor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to our publics for results)

24. 투명성 및 책무성은 개발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파리 선언의 중심인데, 파리 선언에서 우리는 국가들 및 공여국들이 서로와 국민들에게 더욱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우리는 다음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추구한다.
    a) 우리는 보다 투명한 원조를 시행한다. 개도국은 수입, 예산, 지출, 정부조달, 감사의 대중 공개를 포함한 공공 금융관리의 투명성을 통해 의회의 감독을 촉진한다. 공여국은 개도국의 보다 정확한 예산, 회계 및 감사를 위해, 개발협력 관련 전체 지출 규모, 배분 및 결과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이고 상세하며, 시의적절한 공개를 시행한다.(후략)

공여조건의 본질 전환 (We will continue to change the nature of conditionality to support ownership)

25. 국가 주인의식 강화 및 원조흐름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은 개도국 자체의 개발정책에서 조건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파리선언에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 원칙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다음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공여조건의 본질을 바꿀 것이다. (중략)
    b) 지금부터, 공여국 및 개도국은 원조재원 집행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공개한다.

24.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essential elements for development results. They lie at the heart of the Paris Declaration, in which we agreed that countries and donors would become more accountable to each other and to their citizens. We will pursue these efforts by taking the following actions:

a) We will make aid more transparent. Developing countries will facilitate parliamentary oversight by implementing greater transparency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including public disclosure of revenues, budgets, expenditures, procurement and audits. Donors will publicly disclose regular, detailed and timely information on volume, allocation and, when available, results of development expenditure to enable more accurate budget, accounting and audit by developing countries.

25. To strengthen country ownership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aid flows, donors agreed in the Paris Declaration that, whenever possible, they would draw their condi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own development policie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is principle and will continue to change the nature of conditionality by taking the following actions:
b) Beginning now, donors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regularly make public all conditions linked to disbursements.

아크라 세계개발원조총회(Third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08. 9. 2-4)

2. IATI 개관

1) IATI의 비전 및 정보공개 기준

IATI는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들에 의한 모든 활동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공통의 전자적 포맷(electronic format)을 구성하는 것을 비전[1]으로 삼고 있다.

현재 매년 OECD DAC 국가들은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CRS++는 공여국 및 기관의 책임성에 초점을 두고, ODA 자원에 한정하여 검증된 과거의 실적자료 제공을 요구한다. 이와는 다르게 IATI는 개도국의 정보수집 수요에 근거하여 ODA를 포함한 모든 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예측 가능한 미래의 지원규모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CRS++와 IATI 데이터는 많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원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IATI의 구성 및 활동

IATI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 기술자문그룹(Technical

1) A common electronic format for the transparent, timely and comprehensive reporting of all activities by all participants in the delive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Advisory Group)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IAIT의 회원들로 구성되며, 연간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IATI의 정책 및 전략방향 등을 결정한다. 사무국은 정보공개 기준 수립 및 IATI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회원국 및 기관 구성을 반영하여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 연구사업소(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스웨덴, 가나, Development Initiatives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UNDP는 사무국을 총괄하고, UNOPS는 재정, 행정사항 및 보고를 담당한다. 스웨덴과 가나는 각각 공여국, 수원국에 대한 아웃리치를 담당하며, Development Initiatives는 기술지원 및 CSOs와 신흥 공여국에 대한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술자문그룹은 참여국 및 기관의 IATI 이행을 지원하고, 개도국에서의 IATI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IATI의 회원은 IATI의 목적, 공약에 동의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NGOs 등을 망라하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IATI 아크라 선언(Accra Statement)에 서명하고 이행체제(Framework for Implementation)를 승인하여야 한다. 2014년 현재 정회원(fee-paying member)은 59개, 정회원 포함 정보공개 참여국/기관은 210개에 이른다(2014 IATI Annual Report). IATI에 가입한 공여국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등의 15개국이다.

IATI는 ODA 관련 공통의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이 자발적으로 ODA 지원실적, 향후 지원계획, 국별지원전략 등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토록 지원하며, 회원은 IATI의 정보 공개 양식에 맞춰 자체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IATI 웹사이트에도 이를 등록하게 된다(〈표 2〉참고).

〈표 2〉 IATI 회원의 정보공개 현황

회원	가입	정보공개
Adaptation Fund	2013년 4월	–
아프리카 개발은행(ADB)	2011년 4월	2013년 6월
호주(외교통상부)	2008년 9월	2011년 9월
벨기에	2012년 11월	–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MGF)	2013년 10월	–
Bond	2013년 11월	2012년 7월
캐나다(외교통상개발부)	2011년 11월	2012년 10월
덴마크(Danida, 외교부)	2008년 9월	2012년 3월
Development Initiatives Poverty Research	2008년 11월	2011년 7월
EC	2013년 10월	–
유럽투자은행(EIB)	2013년 10월	–
핀란드(외교부)	2008년 9월	2011년 11월
독일(경제협력개발부)	2008년 9월	2013년 3월
지구환경금융(GEF)	2013년 3월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1년 11월	2013년 3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2012년 5월	–
아일랜드(Irish Aid, 외교통상부)	2008년 9월	2013년 7월
네덜란드(외교부)	2008년 9월	2011년 9월
뉴질랜드(외교통상부)	2008년 9월	2012년 5월
노르웨이(NORAD, 외교부)	2008년 9월	–
Publish What You Fund	2008년 11월	2011년 11월
스웨덴(SIDA)	2008년 9월	2011년 10월
스위스(SDC)	2009년 6월	2013년 11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 기금	2011년 6월	2011년 11월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2008년 9월	2011년 3월
세계은행	2008년 9월	2011년 5월
Transparency International Secretariat	2008년 11월	2012년 5월
영국(DFID)	2008년 9월	2011년 1월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2011년 12월	2012년 10월
유엔아동기금(UNICEF)	2012년 3월	2013년 6월
유엔개발계획(UNDP)	2008년 9월	2011년 11월
유엔연구사업소(UNOPS)	2011년 10월	2011년 10월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	2012년 8월	–
유엔인구기금(UNFPA)	2012년 5월	2013년 7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	2012년 5월	2012년 11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2012년 8월	2013년 6월
미국	2011년 11월	2012년 12월

* 출처: 2014 IATI Annual Report

Ⅲ. 우리나라의 IATI 가입

1. IATI 가입의 기대 성과

국내외 원조 투명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3월 국무총리 주재 하 개최된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IATI 가입을 의결하였다. 이후 범정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2016년 상반기 IATI 가입 및 원조정보 공개를 추진 중이다.

IATI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여러 성과가 기대된다. 우선 투명한 원조 사업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파트너십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투명하고 책임있는 협력(Transparent and responsible co-operation)

23. 우리는 우리의 이 분야에서의 각자의 공약에 기반하여 개발협력 및 다른 개발원천에 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및 대중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략)

c) 개발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재원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위해 공통의 공개된 기준을 이행한다. 동 기준은 OECD-DAC 통계 보고 및 국제원조투명성기구와 다른 보완적인 보고 체계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23. We will work to improve the availability and public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development resources, building on our respective commitments in this area. To this end, we will:

c) Implement a common, open standard for electronic publication of timely, comprehensive and forward-looking information on resources provided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statistical reporting of the OECD-DAC and the complementary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and others.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11. 11. 29 – 12. 1)

---

2)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개발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이들은 중요한 행위자들(의회,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민간부문, 연구기관, 개도국 파트너 및 일반 대중들)의 접근 및 이해가 용이한 방식으로 개발협력 정책, 전략, 절차, 예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MO, MOFAT, and MOSF should continue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Korea' s development cooperation – in particular, they should disclose informa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trategy, procedures, budget(countries and sectors), programmes and projects in a way that is easy for key stakeholders – parliamentarian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non-government organizations(NGOs), private sector, research institutes, developing country partners and the general public – to access and understand.)

3) 현재 국제적인 공통 기준은 OECD/DAC CRS, FSS(Forward Spending Survey) 및 IATI의 세 가지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수행이 가능해져 우리 원조의 질적 향상 및 원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원조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전반적인 원조 수행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원조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세금 납부자의 적절한 관심과 지지는 원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2012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검받은 OECD DAC Peer Review시 제시된 정보제공 권고[2]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동 Peer Review에서는 우리 정부에게 ODA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정책, 전략, 예산, 사업 등)를 국민에게 제공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는데, IATI 가입이 동 권고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1월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의 공약을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동 총회에서는 원조 정보 제공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기준(common standard)[3] 이행시 IATI의 역할을 고려하라는 공약이 채택되었고, 우리 정부는 IATI 가입으로 동 공약을 이행하게 된다.

2. 현황 및 향후 계획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4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IATI 가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IATI 가입 및 원조 정보 공개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KOICA와 수출입은행이 2014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된 IATI 운영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였고, IATI 가입준비 지원을 위한 데이터 산출 여건 등 준비현황 파악 및 기술 자문을 위해 IATI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담당자를 초청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KOICA, 수출입은행으로 이루어진 '원조정보 공개 및 IATI 가입 T/F'가 구성(2014.6월)되어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시기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의 IATI 가입 관련 정보 공유 및 정보공개 참여 기관 범위 확대 논의를 위해 IATI 관련 무상원조관계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였고, KOICA와 수출입은행은 원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관련 예산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될 Post-2015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IATI 가입 계획을 발표하고, 제2차「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IATI 가입 이후 우리 ODA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Ⅳ. 결론

원조의 투명성의 제고는 공여국의 원조예산 집행의 효율화 및 원조정책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발 현장에서 수원국의 원조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가능케 한다. 더 많은 원조와 동시에 더 효과적인 원조를 고민해야 하는 현재 각국이 원조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한국은 비록 원조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으나 개발에 성공한 경험을 기반으로 많은 개도국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투명성 제고 등 개발협력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다른 공여국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은 많은 인내와 구성원들의 높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정한 IATI 가입도 그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의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롭고 용기 있는 결정에 많은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다.

〈참고문헌〉

1. 국외문헌

OECD.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2012. Paris. OECD.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dac/peer-reviews/Korea%20CRC%20-%20FINAL%2021%20JAN.pdf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2013. "2013 IATI Annual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aidtransparency.net/annual-report

_____. 2014. "2014 IATI Annual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aidtransparency.net/annual-report

World Bank.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ACCRAEXT/Resources/4700790-1217425866038/AAA-4-SEPTEMBER-FINAL-16h00.pdf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008.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development/effectiveness/49650173.pdf

2. 참고 웹사이트

ODA Korea, www.oda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Post-2015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김찬유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통계전문관)

목 차

I. 들어가며
II. 데이터 혁명의 정의
III. 국제 원조사회에서의 데이터 혁명 논의
  1. Post-2015 개발의제와 데이터 혁명의 등장
  2. 데이터 혁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의 확산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IV. Post-2015 시대에서의 데이터 혁명의 역할과 기대효과
  1. 데이터 접근성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
  2.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통한 Post-2015 개발의제 달성 기여
  3. 원조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V. 결어: KOICA와 데이터 혁명
  1. 체계적인 원조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2.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역량 강화 지원

Ⅰ. 들어가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Post-2015 개발의제 확정이 목전에 옴에 따라 그 윤곽이 점차 명확해져 가고 있다. 특히 Post-2015 개발의제의 근간이 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17대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목표를 평가하는 지표들 또한 304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비해 대폭 늘어

날 예정이다. 또한 SDGs는 환경, 불평등, 평화와 안보, 등 기존 MDGs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발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원조 데이터가 수집,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주목해야 할 점은 SDGs가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향후 SDGs의 데이터 관리 및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이하 SDSN)는 SDGs의 채택으로 인해 개발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혁명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SDSN 2015b, p6).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원조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KOICA 또한 이러한 정부 시책에 맞추어 2014년부터 IATI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 9월 기관 차원의 IATI 가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KOICA를 비롯하여 관련 정부 기관들은 IATI 기준에 맞춘 데이터 공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데이터 관리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개발 및 원조 데이터의 질적, 양적 제고와 그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적절한 원조 및 개발데이터 관리는 원조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Post-2015에 대비하여, 데이터 혁명을 중심으로 원조데이터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KOICA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혁명의 정의,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 혁명의 정의를 소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원조사회에서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논의와 그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제4장에서는 Post-2015 시대에서의 데이터 혁명의 역할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성공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원조 공여 기관으로서의 KOICA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II. 데이터 혁명의 정의

데이터 혁명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 혁명은 단순한 원조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넘어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혁명은 아래 〈BOX 1〉과 같이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룬다.

〈BOX 1〉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논의

- 복잡한 개발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적 조치(transformative action)
- 데이터 생성 및 사용 방법의 개선
- 정보 격차 감소를 통한 차별 방지
- 빅데이터 분석과 정보 해석 능력의 강화
- 데이터 수집의 현대화
-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새로운 목표 및 지표 개발

* 출처: http://www.undatarevolution.org

위와 같이 데이터 혁명이 데이터와 관련된 광범위한 논의들을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정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대한 독립전문가자문단(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IEAG)은 2014년 11월 발간한 보고서 '셀 수 있는 세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 동원(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데이터 혁명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IEAG는 동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데이터 혁명'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BOX 2〉 데이터 혁명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정의

데이터 혁명	• 정보량, 정보생성 속도, 정보 생산자, 정보의 보급, 정보 범위의 팽창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 고품질의 정보 생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통합 • 정보 공개 증대 및 투명성 향상을 통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증가 • 인간과 환경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력 강화, 좋은 정책과 결정, 참여와 책임성 향상

* 출처: IEAG(2014, p6)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위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은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 혁명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지칭하는 데이터 혁명이란 광범위한 데이터 혁명을 뜻하기 보다는 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혁명을 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칭하는 데이터 혁명 또한 개발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III. 국제 원조사회에서의 데이터 혁명 논의

1. Post-2015 개발의제와 데이터 혁명의 등장

데이터 혁명은 2013년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 회의(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의 보고서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 전환(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동 패널 회의는 Post-2015 개발의제 구축을 목적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구성되었으며,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빈곤의 다면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 전환, 등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었다. 특히 그동안 개발 성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와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이 개발 활동들과 그 성과를 충분히 측정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Post-2015 개발의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데이터 혁명을 제안하였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한 Post-2015 개발의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통계의 질적 제고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혁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혁명을 통해 구축되는 양질의 데이터와 통계는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개발 성과 모니터링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조 책임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UN 2013, p23). 또한 동 보고서는 국제 원조기구, 시민사회단체, 재단,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발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enership on Development Data)' 구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선 정부 뿐 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Ibid).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 보고서는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데이터 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이 Post-2015 개발의제 구축 및 방향 설정이었으며 데이터 혁명은 의제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이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Post-2015 개발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수준에서 데이터 및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데이터 혁명'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데이터 혁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의 확산

사실 국제 원조사회에서 원조 활동의 정확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원조투명성 및 효과성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이슈이다. 따라서 데이터 혁명의 정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공감은 쉽게 이루어졌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 전환' 보고서에서 데이터 혁명이라는 개념이 소개된 이후 Post-2015 개발의제 달성을 위해 데이터 혁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예로 2014년 1월에 개최되었던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를 위한 데이터 및 책무성에 관한 회의'를 들 수 있다. 동 회의는 UNDP가 주최하긴 하였지만 시민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회의로 국제기구 관계자 뿐 만 아니라 관련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Post-2015 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데이터 혁명과 책임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혁명의 개념 정의뿐 만 아니라 빅 데이터, 데이터 혁명을 위한 역량 개발, 데이터 혁명을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강화, 등 데이터 혁명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가 다루어졌다. 동 회의는 시민 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졌기에 국제 원조 사회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해 데이터 혁명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과 공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데이터 혁명에 대한 관심 및 지지는 다양한 CSO 및 NGOs들의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The centre for Policy Dialogue(CPD), The North-South Institute(NSI) 및 Southern Voice는 'Post-2015 데이터 테스트: 국가 단위에서의 데이터 혁명 분석(The Post-2015 Data Test: Unpacking the Data Revolution at the Country Level)'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각각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각 개별국가에서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집되고 측정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른 예로, Partnership

for African Social & Governance Research(PASGR)는 2013년 3월 Post-2015 데이터 혁명을 주제로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수집 및 통계 역량 강화, 모니터링, 등 데이터 혁명 관련한 아프리카의 현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원조 관련 시민 단체들은 각 개별 기관 차원의 노력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과 서로 협력하여 Post-2015 데이터 혁명 지원 및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 분야, 시민 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Post-2015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창설하고 활동 중에 있다.[1] 각각의 이니셔티브들은 빅 데이터, 통계 시스템 현대화, 통계 역량 강화, 오픈 데이터(open data), 등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각계각층의 움직임들은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와 요구가 점증함에 따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4년 8월 IEAG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대한 자문 및 연구를 요청하였다.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데이터 혁명의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었지만, 단체 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개념 및 포괄 범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존재하는 등 명확히 정리된 기준이 부재했으며 구체화를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여 IEAG는 2014년 11월 '셀 수 있는 세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동원(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 IEAG의 Data Revolution Group 웹사이트는 Post-2015 데이터 혁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소개하고 있다: United Nations Global Pulse,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Responsible Data Foru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Humanitarian Data Exchange(HDX), Partnership on Measu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Smart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SSDM) Initiative, Connect the World Initiative, High-Level Group for the Modernisation of Statistical Production and Services, Eurostat CROS-Portal page on Big Data Initiative, Paris21 Projcet: Informing a Data Revolution(IDR), Evidence and Data for Gender Equality Initiative, Global strategy to improve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 United Nations Initiative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UN-GGIM), The Statistical Commission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Broader Measures of Progress, The Post-2015 Data Test, Feasibility study on the use of mobile positioning data for tourism statistics, Producing official statistics with Big Da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for Official Statistics, ABS Big Data Flagship Project,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Frontiers of Big Data Big Models New Insight, data2x, Follow the Money,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 World Bank Open Data portal, Open Data Innovations Network, Open Data for Development, The Open Data Research network, Project Open Data, SDMX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 Nigeria MDG Information System, Data-Pop Allianc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www.undatarevolution.org/catalog/2/).

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IEAG는 데이터 혁명을 '의사 결정, 원조책임성 및 개발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향상시킬 기회'라고 소개하며 따라서 각 정부와 UN에게 국가 간, 사람 간,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 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줄여 데이터가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IEAG 2014, p5).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개념 정립과 함께 데이터 혁명이 가져올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덧붙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이행과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의 〈Box 3〉에서 제시된 IEAG 제언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 구축이란 공공, 민간, 시민분야 등 각 분야의 데이터가 산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데이터에 관한 글로벌 컨센선스'를 구축하고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둘째, 공공재를 위한 기술과 혁신 공유란 관련 전문가들이 어떠한 기술 및 혁신이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Network of Data Innovation Networks)'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향상, 효율성 증대, 협력 강화,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셋째, 역량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자원이란 데이터 역량 개발을 위해 새로운 재원들이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협력과 동원을 위한 리더십과 관련해, IEAG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및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 데이터 성과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최신의 기술과

〈BOX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 실현을 위한 제언

1.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 구축
   (Develop a global consensus on principles and standards)
2. 공공재를 위한 기술과 혁신 공유
   (Share technology and innovations for the common goods)
3. 역량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재원
   (New sources for capacity development)
4. 협력과 동원을 위한 리더십
   (Leadership for coordination and mobilisation)
5. SDG 데이터 관련 빠른 성과 측정
   (Exploit some quick wins on SDG data)

* 출처: IEAG(2014, p1–2) 저자 재구성

도구를 활용하여 SDG 관련 지표나 관련 데이터를 개발, 연구할 수 있는 'SDGs 데이터 실험실(SDG Data Lab)'을 설립할 것을 제언하였다.

동 보고서는 데이터 혁명 지원을 목표로 모인 UN의 자문위원단이 작성한 만큼,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위치에서 Post-2015에 대비한 데이터 혁명 이행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실화를 위해 'SDG 데이터 실험실 (SDG Data Lab) 구축', '지속가능한 개발 데이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ta)'과 같은 다양한 제언사항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아직은 논의의 초기단계인 만큼 앞으로 Post-2015 시대에 IEAG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또한 어떠한 형태로 IEAG의 제언 사항들이 구체화되어 나갈지에 대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IV. Post-2015 시대에서의 데이터 혁명의 역할과 기대효과

데이터 혁명 그 자체가 핑크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IEAG는 데이터 혁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뿐 만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즉, 데이터 혁명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생활 문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잘못된 정책 결정, 데이터 접근 및 활용 능력의 격차 증대,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데이터 혁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Post-2015 개발의제 달성 및 원조 투명성과 효과성 증진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발에 있어 데이터 혁명의 역할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데이터 접근성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도는 개발의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 〈표 1〉은 실제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정보 공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1〉을 통해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 또는 지역정부 수준의 데이터 공개는 인간개발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거의 20배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데이터 접근 및 이

〈표 1〉 인간개발지수와 정부 정보 공개 간 관계

지역	정보법에 대한 권리	정부데이터 공개 이니셔티브	시민사회와 기술분야 전문가로부터의 요청	정부 데이터 공개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부의 지원	시 또는 지역 정부 데이터 공개
매우 높은지역	57.81	59.69	60.31	40.28	45.14
높은지역	48.75	43.13	31.88	18.06	22.22
보통지역	40.00	40.91	34.55	18.18	12.12
낮은지역	41.11	40.91	25.00	11.73	2.47
총계	49.48	44.68	42.47	25.83	25.69

※ 해당지역의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좋음.

* 출처: Open Data Institute(ODI) (2013, p11)

용 능력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개발 상황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욱 데이터 공개에 있어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Data for African Development Working Group 2014, p13). 이러한 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 이는 원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데이터 혁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여기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양질의 그리고 시의 적절한 정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및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최선의 정책 수립이 힘들며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할당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Stuart E et al, 2015, p17). 한편, 분쟁국의 경우 분쟁발생시 그 기간 동안의 데이터 수집의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이전의 데이터도 소실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Ibid).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부족 혹은 소실은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수원국의 니즈에 맞는 적절한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유발한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 능력이 담보될 때 효과적인 정책 혹은 원조 프로그램의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 혁명을 통한 수원국의 데이터 수집 및 접근성 강화는 수원국이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실제로 르완다의 경우 데이

터 수집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생활 여건 조사, 인구 건강 조사와 같은 주요 통계 지표들의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르완다의 첫 빈곤 감소 전략의 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계획 수립도 가능하게 되었다(Staurt et al 2015, p31, Glassman & Ottenhoof 2014에서 재인용).

또한 데이터 혁명은 수원국의 정책 결정 뿐 만 아니라 원조 프로그램 계획과 집행에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장기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농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상위 10%의 부유한 농부들이 전체 보조금의 50%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해당 정책을 검토 후 보조금을 적절히 재배분 할 수 있게 되었다(UN 2013, p14). 즉, 데이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장소나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감소와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2.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통한 Post-2015 개발의제 달성 기여

원조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는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성공적인 원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개발과 관련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표 개발 및 데이터 수집은 개개의 원조 프로젝트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 원조 전체의 맥락을 아우르는 SDGs 목표 측정까지 아우른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Post-2015의 토대가 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과거 MDGs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목표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지표들 또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SDGs의 모니터링 및 평가 원칙으로 자발적, 개별 국가 주도적, 참여적, 실증적, 다층적인 공동평가(universal review)[2]를 내세우며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김지현 2014, p11). 따라서 Post-2015와 관련하여 국제 원조 사회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는 앞으로 더욱 큰 축을 차지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데이터 접근 및 수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EAG의 MDGs 데이터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MDGs와 관련한 55개의 지표와 관련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의

2) 다층적인 공동평가 원칙이란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요소를 다루는 평가 원칙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행주체가 모여 주제별 도전과제와 병목현상 해결을 논의하는 주제별 평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자체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지현 2014, p11-12).

60%정도에 불과했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준 2005년부터 2009년의 경우에도 70%에 그쳤다(IEAG 2014, p12). 따라서 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늘어난 지표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예로' Post-2015 Data Test'라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캐나다, 방글라데시, 세네갈 등 소득 수준이 다양한 7개의 국가에서 Post-2015의 일부 목표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SDGs 데이터 수집의 양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PD et al., 2014, p.14-15). 이와 같이 광범위한 SDGs의 진행 여부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Post-2015 개발 의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데이터 혁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혁명은 데이터의 수집 방법의 제고도 포함한다. 즉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통계 시스템의 구축, 데이터 수집 역량 강화, 최신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다(Anderson, 2014).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된다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질 제고뿐 만 아니라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단계부터 필요한 데이터가 잘 관리된다면 프로그램 종료나 사후에 진행되는 평가에 있어 1차 자료(primary data)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평가 시간 단축 및 데이터 수집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Staurt et al 2015, p21). 다른 예로는, 최신의 기술인 SNS를 활용한 모니터링이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UN Pulse Lab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쌀 가격이 51%나 폭등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활용하여 식량 안전과 관련된 대화를 모니터링하기도 하였다(Ibid, p43, UN Global Pulse 2014에서 재인용). 이렇듯 데이터 혁명은 지표 개발, 데이터 수집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 질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3. 원조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데이터 혁명은 원조 투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데이터 혁명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데이터 공개(Open data)이기 때문이다. 즉, 원조 혹은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서로 공유하며 이용하는 것 또한 데이터 혁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원조 투명성 및 책임성과 연관된다. 실제로 최근 원조투명성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IATI의 경우에도 데이터 혁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데이터가 시기적절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IATI, 2014, p16).

한편 데이터 혁명 논의는 수원국 정부나 NGO같은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데이터 공개 또한 포함한다. 그동안 원조 투명성 및 책임성은 공여국 혹은 공여 기관의 활동을 위주로 논의되어 왔다. 원조 투명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원조 수행기관들이 자신의 원조 활동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책무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예산지원(Budget Support) 확대, 등으로 인해 수원국 정부를 통한 원조 집행이 늘면서 수원국의 투명성 강화 또한 강조되고 있다(박수영 & 박예린 2014, p5). 같은 맥락에서 IATI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국제기구들과 달리 회원 자격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여국, 수원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원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Ibid, p6). 즉,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데이터 공개 및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데이터 혁명의 중요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를 누구를 위해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Ingram, 2014).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조 효과성이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된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데이터 혁명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또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어: KOICA와 데이터 혁명

2015년 9월은 한국의 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원조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Post-2015 개발의제가 확정될 뿐 만 아니라, 동 의제가 결정될 Post-2015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IATI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맞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원조 공여기관으로서 KOICA의 역할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체계적인 원조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앞서 언급하였듯이 Post-2015의 근간이 될 SDGs의 목표 및 세부 지표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IATI 설립 등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원조투명성 및 원조효과성 논의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원조 데이터가 관리,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히 관련된 지표 및 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공개된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위의 시스템 마련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SDGs 모니터링을 위해선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IEAG 2014, p14; SDSN 2015a, p4). 또한 IATI와 관련하여서도, IATI의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행정 비용 상승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박수영 & 박예린 2014, p16). 따라서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역량 강화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혁명은 공여국과 수원국, NGO, 민간 부문 등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수원국의 통계 역량 강화와 데이터 공개 관리를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는 원조효과성 증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KOICA는 원조 공여기관으로서 수원국의 통계 역량 강화 및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원국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수원국의 데이터 관리 능력 역량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OD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수원국 공무원은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드는 공항 건설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데이터로 인해 비용-편익 분석 같은 가장 기초적인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ODI 2015, p17).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도 수원국과 함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법들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간접적으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들, 사전 조사나 혹은 사후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 혹은 활용 또한 수원국의 데이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평가 진행 시 다양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평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설문 조사나 통계 프로그램 활용 및 결과 등을 수원국과 공유하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얻은 기초 데이터(raw data)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뿐 만 아니라 향후 수원국이 다른 사업이나 정책 계획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데이터 혁명은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수원국의 개발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KOICA의 각종 사업에 있어 원조효과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지현 (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개발과 이슈』. 제22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박수영, 박예린 (2014).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투명성 의의분석: IATI와 원조투명성지수를 중심으로".『개발과 이슈』. 제18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 국외문헌

Bill Anderson. 2014. "Donors, results, IATI and the data revolution". Development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devinit.org/old_site/donors-results-iati-data-revolution/

Center for Policy Dialogue, The North-South Institute (NSI) and Southern Voice on Post-MDG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2014. "Methodology and Implementation Guide". Retrieved from http://www.post2015datatest.com/wp-content/uploads/2014/07/Post2015-Data-Test-Methodology-Guide.pdf

Data for African Working Group. 2014. "Delivering on the data revolution in Sub-Saharan Africa".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cgdev.org/sites/default/files/CGD14-01%20complete%20for%20web%200710.pdf

Glassman, A & Ottenhoff, J. 2014. "Better data in Rwanda.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cgdev.org/blog/better-data-rwanda

Inagram, G. 2014. "Building aid transparnecy: more data, better data". Retrieved from http://www.publishwhatyoufund.org/updates/by-country/us/building-aid-transparency-more-data-better-data/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Group. 2014. A world that counts: mobilising the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2014. "Annual Report 2014". Retrieved from http://www.aidtransparency.net/

reports/IATI-annual-report-2014.pdf

Open Data Institute. 2013. "Open Data Barometer: 2013 Global Report". London: ODI. Retrieved from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CIQFjAA&url=http%3A%2F%2Fwww.opendataresearch.org%2Fdl%2Fodb2013%2FOpen-Data-Barometer-2013-Global-Report.pdf&ei=WdSDVaClMoTOmwXRw4GIAQ&usg=AFQjCNHpJU1e_7j3HKh8bJ2R3V__Duw6xw&bvm=bv.96042044,d.dGY&cad=rjt

Stuart E, Samman E, Abis W & Berliner B. 2015. "The data revolution: Finding the missing millions". ODI Research Report.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2015a. "Data for Development: An Action Plan to Monit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Fulfill the Hopes of the Data Revolution".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2015b. "Data for Development: A Needs Assessment for SDG Monitoring and Statistical Capacity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UN Global Pulse. 2014. "Mining Indonesian Tweets to understand food price crisis". Jakarta: UN Global Pulse. Retrieved from http://www.unglobalpulse.org/sites/default/files/Global-Pulse-Mining-Indonesian-Tweets-Food-Price-Crises%20copy.pdf

3. 참고 웹사이트

Data Revolution Group, http://www.undatarevolution.org

Post-2015 Data Test, http://post2015datatest.com

Partnership for African Social and Governance Research(PASGR), http://www.pasgr.org

PublishWhatYouFund(PWYF), http://ati.publishwhatyoufund.org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KATI)[1)]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2)])

목 차

I. 원조투명성 논의의 흐름
1.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필요성
2.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II. 원조투명성 측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IATI의 IATI Standard
2. PWYF의 Aid Transparency Index (ATI)
III. 한국원조투명성의 현실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IV.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한국 원조투명성지수(KATI)
1. 한국 원조투명성지수 구축의 필요성
2. 한국원조투명성지수(KATI) 체계 및 방법론
3. KATI 종합 체계

Ⅰ. 원조투명성 논의의 흐름

1. 원조투명성의 개념과 필요성

원조투명성은 2005년에 시작된 원조효과성 정책 담론에서부터 2011년에 형성된 부산글로벌파트

1) 이 글은 ODA Watch가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개발협력학회의 후원으로 연구하고 발간한 '한국 원조투명성지수 개발 연구보고서– KATI: The Korean Aid Transparency Index'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2) 이 글의 대표저자는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이고, 공동저자는 김헌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윤지영 ODA Watch 정책기획팀장, 조이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생임. 그리고 연구에는 배하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생, 조인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생이 참여했음.

너십에 이르기까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개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여국들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원조 투명성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의미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원조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조 정보가 시의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이고 상호비교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조투명성은 단순히 공여국이 제공하는 원조 정보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느냐'를 넘어 성공적인 개발사례를 촉진하고 확대하는데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원조투명성이 높아지면 공여국은 원조예산 배분과정에서 누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원조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국가별로 최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여국 내 다양한 시행기관 간의 사업 중복을 막고 유사사업 발굴 · 기획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외원조예산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수원국에게는 전 세계 여러 공여국이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국 정부는 해외에서 다량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흐름을 미리 파악하여 자국의 개발계획과 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공여국 및 수원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원조정책과 예산 집행 내역을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원조 자금 감시와 행정부 견제 기능의 성숙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원조투명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파리선언이라 할 수 있다. 공여국 정부들로 구성된 OECD DAC은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원조효과고위급 회의에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고 책무성과 더불어 투명한 원조집행을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로 강조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이어진 제3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3)는 아크라행동의제(Accra Agenda for Action, 이하 AAA)을 채택하여 '원조의 규모와 배분, 예산지출의 결과까지 정기적이고, 구체적이며,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수원국이 예산, 회계, 감사를 더욱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현재 국제사회의 공통된 정보공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를 발족하여 AAA의 원조투명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에 대한 조항을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하는 노력을 이끌어냈다. IATI는 AAA의 채택을 지지하는 '원조투명성에 대한 아크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원조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일각의 담론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아크라 회의 이후 IATI는 개발도상국 정부와 시민사회, 의회,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쳐 투명한 원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기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ATI는 2011년 2월, 원조정보 공개기준인 IATI Standard를 개발하고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IATI가 국제적인 정보공개 기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11년 열린 부산총회(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이다. 국제사회는 부산총회의 합의사항을 담은 정치선언문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4대 공통원칙 중 2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실제로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OECD DAC의 통계 보고 시스템과 함께 IATI standard를 공통의 공개 기준으로 명시하고 2015년 12월까지 전면 이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부산 총회 결과문서를 승인한 국가 및 기관들은 2015년까지 IATI에 가입하는 것을 합의한 것이다.

부산총회 이후 국제사회는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아래 10대 평가 지표를 수립했다. 이 중 지표 4.개발협력 정보 공개 5.원조 예측가능성 6.원조의 예산화 7.상호책무성 등 4개 지표가 원조투명성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부산파트너십을 통해 공여국들은 공통의 정보공개기준인 IATI standard에 따라 IATI에 가입 · 참여하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IATI는 공개된 정보를 한곳에 집약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 ·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IATI 레지스트리(registry)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원조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OECD DAC을 중심으로 하는 원조효과성 담론 외에 UN 중심의 개발의제 논의에서도 급속도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구촌의 절대 빈곤퇴치를 실현하는 주요한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불리고 있는 새로운 개발목표의 구체적인 초안 작업을 맡았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이하 OWG)은 총 13차례의 회의를 열어 2014년 7월 최종 초안을 마무리 지었다. 최종 초안은 17개의 목표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에 대한 17번째 목표에서 원조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을 명시하며 원조 정보는 질적으로 높고, 시기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OW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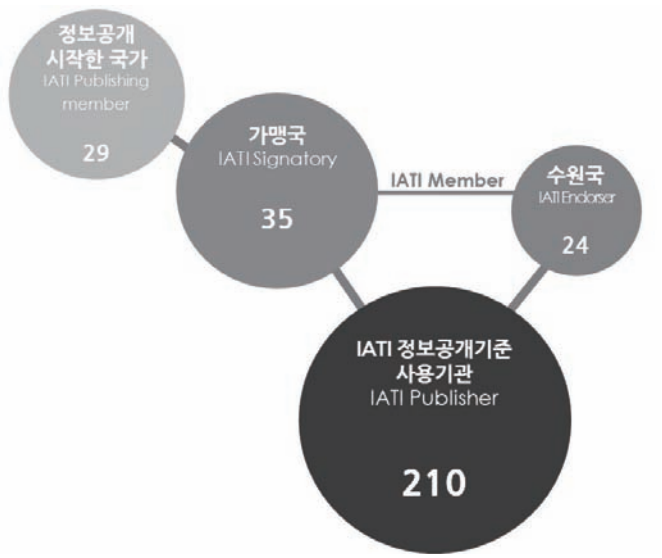
II. 원조투명성 측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IATI의 IATI Standard

IATI는 국제 양자 · 다자공여기관 및 수원국이 참여하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동시에 공여주체가 공개하는 원조정보를 집약하는 레지스트리(registry)로서의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IATI는 원조투명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공통의 정보공개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1년 IATI standard를 수립한 바 있다.

〈그림 1〉을 보면, 2014년 IATI 가맹국은 총 35개이며, 이 중 29개 기관이 IATI 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 시스템을 지지 · 협력하는 24개 수원국 또한 동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기 35개 공여주체와 24개 수원국은 IATI 회원(member)이자 운영위원회 일원이다. 그 외에도 거버넌스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IATI 기준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공여기관 또한 2014년 기준 210여 개국에 달한다.

〈그림 1〉 IATI에 참여하는 국가 및 국제공여기관 현황



* 출처: 2014년 IATI 연례보고서를 토대로 연구팀이 재구성

IATI 정보공개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IATI 정보공개기준은 크게 기관(organization) 수준의 정보와 사업(activity) 수준의 정보로 구분된다.

〈표 1〉 IATI 정보공개기준(standard) 세부지표

	대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기관 수준 (Organizational Level)	Identification(식별)	보고하는 기관	기관코드, 종류, 사용언어
		기관 식별코드 (unique Identifier)	*기관에 부여되는 고유코드를 지칭함
		기관명	
	Budgets(예산자료)	기관의 총 예산	예산시기, 통화 (currency), 실가치
		타기관 자금지원 예산	지원대상기관의코드, 사용언어, 시기, 통화, 실가치
		파트너국가의 예산	파트너국가코드, 사용언어, 시기, 통화, 실가치
	Documents(문서)	기관의 문서	문서가 올려진 URL, 파일형태 (format), 사용언어, 문서종류
사업 수준 (Activity Level)	Identification(식별)	보고하는 기관	기관코드, 종류
		IATI 코드	unique Identifier 입력
		기타 코드	IATI 기준 외 식별명칭
	기본 사업 정보	사업명, 사업설명, 진행상태, 시작 · 종료일자 (계획/실제이행현황), 담당자연락처	
	참여 기관	기관코드, 기관종류, 역할	
	지정학 (geographical)정보	해당국가코드, 지역코드, 국가/지역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부 지리 정보	
	분류	섹터, 정책마커(policy marker), 양자/다자여부, 원조유형, 자금유형, 구속성/비구속성여부	
	재정	사업예산계획, 지출계획	
	거래(transaction)	거래유형, 거래당사자정보, 설명, 원조유형, 자금유형, 지출경로, 구속성/비구속성여부	
	관련 문서	사업문서, 사업웹사이트, 관련사업	
	성과	사업에 결부된 조건과 결과	

* 출처: IATI 홈페이지(www.iatistandard.org)

IATI 기준을 통해 공개되는 모든 원조정보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파일포맷을 지니고 있다. XML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자동 인식되는 형태(machine-readable)의 파일을 일컫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기계를 통해 정보가 자동적으로 분류되기(automatically exchange) 때문에 방대한 사업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공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XML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사전에 투자해야 하는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조정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인적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IATI 레지스트리는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오픈소스(open source) 원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IATI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원조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재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국제 공여기관이 IAT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제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수원국과 공여국 간 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고, 공여국 내부적으로도 집행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보교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XML 포맷은 OECD DAC 통계시스템인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의 정보서식인 USIF(Unified Standard Input Format)와도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XML 포맷으로 공개된 자료는 OECD DAC 회원국이 매년 제출하는 CRS 통계자료와도 연계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2011년 부산총회를 통해 CRS와 IATI 기준을 통합하여 2015년까지 공통의 정보공개기준(common standard)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 PWYF의 Aid Transparency Index (ATI)

1) ATI 구축 배경과 현황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지수로는 영국에 기반을 둔 원조투명성 관련 국제 캠페인 및 리서치 기관인 'Publish What You Fund 이하 PWYF' 가 구성한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 가 있다. ATI는 2009년 아크라회담을 기반으로 창설된 IATI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ATI는 기본적으로 2011년 발표된 IATI 정보공개기준(standard)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IATI와 대부분의 정보공개 항목들이 상호 일치한다. 즉, 이미 IATI 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ATI 평가결과에서도 상위권에 안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2년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IATI에 가입하고, 공통의 기준에 따른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하면서 ATI는 국제원조투명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됐다.

ATI는 개발원조에 관한 주요정보가 공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지 여부로 원조투명성을 측정한다. 이와 같은 측정방식은 평가자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평가과정상의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ATI는 전 세계 양자 · 다자공여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상정하여 국제사회 전반의 원조투명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나, 실질적으로 각 공여기관마다 사용하는 언어나 자료를 공개하는 파일포맷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PWYF 사무국이 단독으로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PWYF는 평가대상이 속한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ATI 지수의 측정근거가 되는 미가공데이터(raw data) 수집을 위임한다. 각국의 서베이어는 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지수별 정보공개현황을 측정하고, 그 근거를 URL 주소로 제시한다. 이후 평가의 공정성과 통일성 담보를 위해 PWYF 사무국이 1차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전달하여 피드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공여기관 역시 근거를 URL로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ATI는 평가자와 피 평가자 간 피드백(feedback) 절차를 담보함으로써 평가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정 상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여기관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기 기관의 투명성 현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수가 단순 평가측정에 그치지 않고, 공여기관의 실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ATI는 지난 2010년 시범(pilot) 측정과 2011년 정식 출범 이래 매년 세부 지표와 측정 방법론을 계속해서 수정 · 보완해왔다. 2014년 ATI는 전체 39개로 크게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commitment to aid transparency) [3개] △기관 수준의 정보 공개(organization level) [8개] △사업 수준의 정보공개(activity level) [28개] 세 가지 주제영역(area)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항목은 2011년 부산총회에 참석한 모든 공여국이 2015년까지 IATI에 가입하고 IATI 기준에 따른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했던 바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ATI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와 각 원조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공개하는지를 '기관'과 '사업' 두 층위로 나눠 평가한다. 기관, 사업 차원의 투명성 두 항목은 평가측정 시 공여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근거 자료(data source)를 직접 수집하는 1차 자료(primary data)를 사용하는 반면, 첫 번째 항목인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은 다른 기관에서 이미 발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해서 점수화하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앞의 두 항목은 각국의 파트너 시민단체가 측정한 서베이 결과를 적용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PWYF가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TI는 각 지표별 정보공개수준을 4개 층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이는 공여기관의 투명성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ATI △항상 공개(always published) △일부 공개(sometimes published) △공개하지 않지만 기관 내 정보를 보유(not published but collected) △정보를 공개하지도, 기관 내 보유하지도 않음(neither published nor collected)의 네 가지 기준 중 '항상 공개'를(1점을 부여함) 제외하고는 아예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항상 공개'에 해당하려면 ① 해당 지표가 요구하는 컨텐츠를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는 동시에 ② 지수측정(data collection)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생산된 최신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이는 원조투명성의 핵심이 상세하고(detailed), 포괄적이면서도(comprehensive) 동시에 최신의 정보(timely)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수측정기준은 특히 평가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다

소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원조투명성이 실질적인 원조효과성과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에 축적한 통계자료 보다 해당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2〉 PWYF ATI 지표별 점수 부여 방식

ATI 지수 점수 측정 기준		점수
always published	항상 공개	1점
sometimes published	일부 공개	0점
not published but collected	정보 비공개, 기관 내 보유	0점
neither published nor collected	정보 비공개, 기관 내 미보유	0점

* 출처: PWYF 홈페이지(http://www.publishwhatyoufund.org/index/2014-ati/)의 ATI관련 내용을 연구팀이 재구성

이와 같이 ATI는 총점을 100점으로 두고 지수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전체 100% 중 대분류에 속하는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commitment to aid transparency) △기관 수준의 정보 공개(organization level) △사업 수준의 정보 공개(activity level)에 각각 10%, 25%, 65%를 부여하며, 대분류를 구성하는 각 하위그룹(sub-group) 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되, 하위그룹별 세부지수는 모두 1/N씩 동일한 가중치로 계산된다. '개별사업 차원의 투명성' 항목의 '성과(performance)' 그룹에 속하는 세부지수인 △결과보고서 △사업타당성조사결과 △사업 거래조건에는 ATI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인 4.33%가 부여되며, 다음으로 '공여기관 차원의 투명성' 항목 내 '재정(financial)'을 구성하는 △중장기총예산규모 △중장기세부예산안 △회계감사결과 등의 세부지수에 4.17%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개별사업 차원의 투명성' 항목에서 '기초사업정보(basic information)'에 해당하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시행일자 등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1.63%로 매우 낮다. 지수별 가중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TI는 전체 39개 중 정보 공개형태에 따라 투명성 수준이 좌우되는 24개 지수에 대해 추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원조투명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정보의 활용과 재가공을 통한 원활한 공유가 가능하려면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포맷(file format)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의 경우 PDF로 공개되거나 한글파일로 공개되더라도 두 경우 모두 정보 전달과 활용에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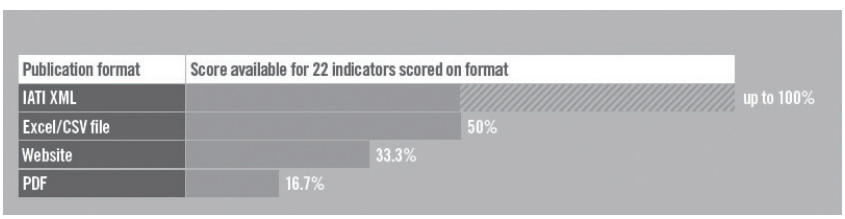
반면, 예산정보의 경우 이를 담고 있는 파일 포맷이 매우 중요하다. 수원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공여국에서 제공되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예산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분류, 처리해야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PDF의 경우 컴퓨터가 시스템을 통해 읽어낼

〈표 3〉 2014년 PWYF ATI(Aid Transaprency Index) 39개 세부 지표

대분류	소분류		세부지표(한/영)		가중치
원조투명성 공약 commitment to AT	공약 (commitment)	1	IATI 정보공개를 위한 내부 이행계획 마련 여부	Implementation schedules	3.33%
		2	정보공개법 내용과 질	Quality of FOI legislation	3.33%
		3	정보 접근가능성 여부	Accessibility	3.33%
기관수준 원조정보공개 (organizational level)	계획 (planning)	4	원조 전반에 관한 전략문서	Strategy	2.50%
		5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50%
		6	원조배분정책	Allocation policy	2.50%
		7	조달 정책	Procurement policy	2.50%
		8	국별전략문서	Strategy (country / sector)	2.50%
	재정 (financial)	9	중장기예산규모(안)	Total organisation budget	4.17%
		10	중장기 세부 예산안	Disaggregated budget	4.17%
		11	회계감사보고서	Audit	4.17%
사업수준 원조정보공개 (activity level)	기초정보 (basic information)	12	사업 시행기관 정보	Implementer	1.63%
		13	사업식별코드(Unique ID)	Unique ID	1.63%
		14	사업명	Title	1.63%
		15	사업설명	Description	1.63%
		16	사업시행기간(예정)	Planned dates	1.63%
		17	사업시행기간(실제)	Actual dates	1.63%
		18	사업(프로젝트)별 추진현황	Current status	1.63%
		19	사업담당자 정보	Contact details	1.63%
	사업분류 (classification)	20	양자·다자원조 여부	Collaboration type	1.86%
		21	사업형태(예산지원, 부채탕감 등)	Aid type	1.86%
		22	ODA/OOF, private grant 등 자금 흐름 명시	Flow type	1.86%
		23	사업 시행 지역 정보	Sub-national location	1.86%
		24	섹터	Sectors	1.86%
		25	구속성 원조 여부	Tied aid status	1.86%
		26	무·유상원조 여부	Finance type	1.86%
	관련문서 (related docs)	27	MOU 체결문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17%
		28	평가 보고서	Evaluations	2.17%
		29	사업목적	Objectives	2.17%
		30	각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 명시	Budget docs	2.17%
		31	계약(Contract) 문서	Contracts	2.17%
		32	입찰(tender) 결과	Tenders	2.17%
	재정 (financial)	33	각 사업의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명시	Budget*	3.25%
		34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	Commitments	3.25%
		35	거래(transaction) 단위별 지출정보 공개 여부	Disbursements & expenditures	3.25%
		36	예산분류코드(Budget ID)	Budget ID	3.25%
	성과 (performance)	37	사업 거래조건	Conditions	4.33%
		38	사전타당성 조사	Impact appraisals	4.33%
		39	결과 보고서	Results	4.33%

* 출처: PWYF의 2014년 ATI REPORT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팀이 정리

〈그림 2〉 PWYF ATI 지수의 정보 공개 포맷에 따른 추가 가중치 적용



* 출처: PWYF 홈페이지(http://www.publishwhatyoufund.org/index/2014-ati/)

수 있는 포맷(machine-readable)이 아니므로 자동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ATI는 컴퓨터 정보관리시스템에 최적화된 다목적 마크업 언어인 XML 포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00점을 부여하며, 정보 분류가 용이한 엑셀(excel) 포맷은 50%, 홈페이지 상에 정보를 기재할 경우 33.33%를, 마지막으로 PDF의 경우 16.67%를 적용한다. 즉, 평가대상 기관인 A와 B가 어떤 지수에 대해 정보를 '항상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A가 XML 포맷으로, B가 PDF 포맷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B 기관은 A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된다(〈그림2〉 참고).

2) ATI 지수의 한계와 보완 방안

ATI는 국제 공여기관 간 비교평가가 용이하도록 지수 항목과 방법론, 점수화 방식이 상당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ATI는 원조투명성의 조작적 정의를 '원조정보공개의 유무'로 매우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상정하고, 지수측정 방식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여부'로 단순화했다. 이러한 측정방식은 홈페이지 URL을 통해 측정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ATI 지수는 원조투명성이 지니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ATI 지수가 과연 원조투명성이 지니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모두 반영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귀결될 수 있다. 원조투명성은 단순 정보공개 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념이며, 공개되는 정보의 질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현재 ATI가 투명한 원조의 4대 원칙인 △접근성 △비교가능성 △시의성 △포괄성을 기초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사실 본 지수의 체계와 측정방법을 보면 정보의 접근성과 체계성, 집약성 등의 개념을 읽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즉,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여부'로 원조투명성을 측정하는 ATI의 방식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원조투명성의 본질적 의미를 충분히 읽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원조투명성 본질적 개념 측정의 한계

① 정보의 집약성과 체계적 분류 측면

KOICA의 경우, 원조정보 공개 채널을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로 일원화하지 않고, ODA 도서관(lib.koica.go.kr), ODA 정보공개센터 등을 통해 분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기 두 홈페이지는 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있으나, ODA 도서관에 게재된 자료의 경우 원하는 자료에 관련한 특정단어를 검색해야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원하는 사람과, 해당 정보가 KOICA 기관 홈페이지가 아닌 ODA 도서관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명, 사업설명, 사업별예산규모 등 사업 기본정보에 관한 정

보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분산적으로 업로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사실 이는 KOICA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관 내 원조정보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국내외 여러 공여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I 지수는 정보의 단순 공개 여부만 측정하기 때문에, 상기 사례들은 모두 항상 공개(always published)로 인정되고 있다. 즉, ATI 지수는 사용자가 원조정보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절차의 복잡성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야기하는 투명한 원조를 위한 4대 원칙 중 하나인 '정보 접근성'이 모든 사용자에게 온전히 담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개발원조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 동일한 정보 접근성을 담보 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WYF는 2014년부터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commitment to aid transparency) 항목 안에 접근성(accessibility)이라는 세부 지수를 새롭게 추가했다. 본 지수는 해당기관이 생산하는 원조정보가 △오픈소스(open source)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사업 수준의 정보(activity level information) 세부지수 중 △적어도 5개 이상이 '항상 공개'되고 △ '최신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ATI 지수가 올해부터 정보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일면 고무적이나, 이를 별도의 지수로 측정함으로써 도리어 나머지 사업 수준의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지수의 접근성이 개별적으로 측정되지 못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② 정보의 질적 측면

ATI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 유무'로 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원조 정보가 모두에게 열려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요한 방식이나, 본 지수의 결과가 실제 공개되는 정보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측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즉, 공개되는 정보의 심도나 깊이, 분량에 관계없이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사업 결과(results)나 평가보고서(evaluation report)에 관한 지수항목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한 성과와 영향,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A 기관과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사업 산출물만을 기록하는 B 기관의 원조투명성 정도는 분명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TI가 원조정보의 '공개' 여부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만 '내용'의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 두 기관이 ATI를 통해 받은 점수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ATI가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수측정 시 정성적 방식을 선택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원조투명성을 질적으로 평가할 경우 해당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성평가는 근거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에 평가 결과에 대한 대상기관의 인정과 합의를 얻어내고, 개발협력 분야 주요 관계자들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불어 ATI처럼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원조투명성을 비교 ·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지표의 경우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공여기관별 원조투명성의 절대적인 질적 측면을 읽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개별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려면 ATI의 내용을 국내적 맥락(localized)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별도의 지수를 고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IATI 가입국 위주의 측정 체계

ATI는 IATI 정보공개기준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부 지수항목들이 IATI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자료들과 일맥상통한다. 즉, 이미 IATI에 가입해서, 동 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에게 있어 ATI는 각국 원조의 투명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체크리스트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IATI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세우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공여국의 경우 ATI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실 ATI 세부지수 중 하나인 계약조건(contract)이나 입찰(bidding) 관련 문건은 물론 핵심적인 원조정보임은 분명하나, 전반적인 개발협력 체계 안에서는 사실 매우 미시적인 요소이다. IATI 미가입국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고, 지수를 통해 향후 증진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세 원조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여기관의 투명성 제도 구축에 관한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

ATI 또한 공여기관 상층부의 정책적 의지 등을 측정하고자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commitment to aid transparency)' 항목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지수가 1.정보공개법의 유무와 2. IATI 정보공개를 위한 이행계획 3.정보접근성 세 가지로, 상기 세 항목이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정책적 의지나 제도 구축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IATI 이행계획과는 별도로 보다 상위 차원에서 원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구축에 관한 별도의 항목이 원조투명성을 측정하는 지수 구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Ⅲ. 한국원조투명성의 현실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한국 원조투명성의 현실은 PWYF의 ATI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무·유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와 EDCF가 평가대상으로 참여해왔으나, 2013년부터 EDCF가 제외되고 KOICA만 대상기관으로 남게 됐다. 이는 PWYF 사무국이 2013년부터 ATI 평가대상 선정 시 개발금융기관(DFI)에 속하는 기관과 원조규모가 10억불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ATI 지수결과를 통해 KOICA와 EDCF 양 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서로 비교·평가할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 원조투명성은 국제사회 내에서 중하위권 수준이다. ATI는 전체대상기관을 원조투명성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상위(GOOD) △평균(FAIR) △하위(POOR) △최하위(VERY POOR)의 다섯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2013-14년 기준 KOICA는 하위 그룹에, 2012년 KOICA, EDCF가 각각 하위(POOR)와 중도(MODERATE) 그룹에 포함된 바 있다. ATI는 2010년부터 매년 평가대상과 세부 지수, 평가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왔기 때문에 연도별, 기관별 절대 비교평가는 어렵지만, 다음의 〈표4〉를 보면 지난 5년 간 국제사회 내 한국 원조의 투명성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표 4〉 2010년~2014년 PWYF ATI 한국 공여기관 등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	KOICA	EDCF	KOICA	EDCF	KOICA	KOICA
26위	22위	43위	41위	37위	30위	
30개	58개		72개		67개	67개

* 출처: PWYF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팀이 재구성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1년과 2012년 EDCF의 경우 비슷한 순위를 나타냈던 반면 KOICA의 경우 급격한 등수의 하락을 보였다는 점이다. 2012년 KOICA는 41위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19등이 하락했다. 이는 ATI가 매년 평가방식을 수정·보완하면서 지수 세부 구성에 변화가 있었고, 국제단위에서 이뤄지는 상대평가이기에 연도별 등수를 놓고 한 기관의 투명성 수준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충격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등수변화와는 달리 2011년과 2012년 KOICA가 획득한 ATI 점수는 각각 37점과 39점으로 지난 2년간 동 기관의 절대적인 투명성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 당시 KOICA가 위치한 점수 구간에 미세

한 차로 많은 기관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반면 EDCF의 경우 2011년 20%에서 2012년 42%로 일 년 사이에 두 배가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 기본적으로 EDCF의 정보공개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표별 정보공개항목의 절대적인 증가 보다는 가중치 변경 등 점수화 기준의 변화에 의해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ATI 지수는 평가기관의 국제사회 내 투명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임은 분명하나, 본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의 절대적인 투명성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 이후 2012년 외교부의 주도로 IATI 가입을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공동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가 부산 파트너십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원조투명성캠페인을 기획 · 추진하여 IATI 가입과 함께 한국 원조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ODA Watch는 국회 우상호 의원과 함께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3단계의 단계별 이행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ODA Watch, 2013).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2014년 3월에 열린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상기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2014년 IATI 운영위원회에 한국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가 옵저버로 참석하고, 약 2년간 정식 가입을 위한 국내 준비 작업을 거친 뒤 2015년 9월에 열리는 Post-2015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의 IATI 가입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국내 준비작업을 위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KOICA가 참여한 「IATI 가입 관계기관 T/F」가 구축됐다. 양 기관 모두 2016년 상반기 IATI가입 후 IATI standard 38개 항목 중 필수공개 항목부터 우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Ⅳ.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한국 원조투명성지수(KATI)

1. 한국 원조투명성지수 구축의 필요성

ATI의 경우 국제 공여기관 단위에서의 투명성 측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수의 체계 및 방법론을 보면 IATI에 이미 가입하여 원조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가들의 투명성 현황을 파악하는데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IATI 미가입국으로, 계속해서 원조투명성 수준을 끌어올리고 체계를 구축해나가

야 하는 한국과 같은 공여국의 경우 ATI 지수측정 결과만으로는 적실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ATI는 2014년 현재 KOICA를 유일한 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으나 실제 한국 ODA에는 무·유상원조 대표 시행기관인 KOICA와 EDCF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가 원조사업에 참여하고 분산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국내 개발협력 체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 원조의 전반적인 투명성 현황 측정을 위해서는 KOICA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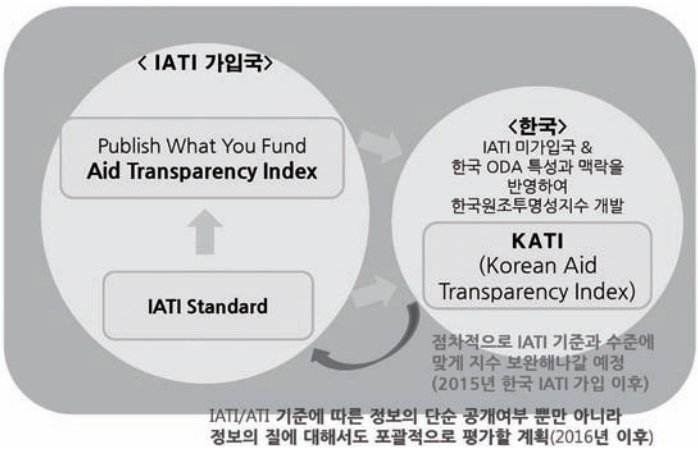
따라서 ODA Watch는 2014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 원조의 맥락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원조투명성지수, 일명 한국원조투명성지수(The Korean Aid Transparency Indexm 이하 KATI)를 개발했다. 이미 국제사회가 투명한 원조를 위해 공통의 기준이자 가장 적실한 측정의 툴로써 IATI 정보공개기준을 형성했으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KATI는 IATI 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며,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 담론과도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IATI 기준을 토대로 구성된 ATI를 이번 연구의 모태로 삼되, 이를 한국 원조의 맥락에 맞게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KATI의 체계 및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특히 2015년 IATI 정식 가입을 앞두고, 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해 현재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 원조에 있어 매우 적실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IATI 가입을 계기로 삼아 국내 원조투명성 현황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 제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KOICA · EDCF 등 개별기관 차원이 아닌 '한국 원조' 라는 통합적 이름으로 IATI에 가입할 계획이다.

KATI는 여러 정부부처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국내적 평가 툴로서, 각 기관에 필요한 제도 · 정책 · 현상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지수는 IATI 정보공개항목을 토대로, IATI 미가입국인 국내 실정에 맞춰 '투명성 제도 구축' 에 관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원조사업을 집행하는 각 정부부처가 스스로의 투명성 현황을 반추해볼 수 있는 적실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원조투명성지수(KATI) 체계 및 방법론

KATI는 PWYF의 ATI를 근간으로 삼아 만들어졌기에 기본적으로 IATI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KATI는 2016년 IATI 가입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내사회의 제도를 구축하고 실질적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일부 지수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즉, 한국 정부가 IATI 가입 이후 동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를 시작하는 초창기 단계인 2016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KATI 지수가

〈그림 3〉 KATI, IATI, ATI 간 상관관계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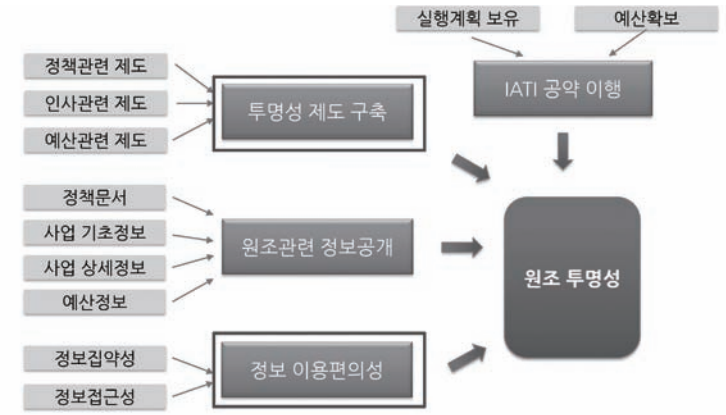
한국 원조의 전반적인 투명성 제도를 구축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ATI 시스템이 안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에는, KATI 지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각 주무부처별 IATI 이행 현황과 원조투명성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상호 비교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의 〈그림 3〉은 한국 원조투명성지수인 KATI와 IATI 체계, PWYF의 ATI 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1) KATI 체계

(1) 지수 구성

KATI는 아래 〈표 그림 4〉와 같이 크게 △IATI 공약 이행 △투명성 제도 구축 △원조관련 정보공개 △이용편의성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분류체계는 각각 1) IATI 이행 약속의 이행현황 2)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3) 원조 관련 상세 정보 공개여부 4) 동 원조정보의 집약적 제공과 접근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진은 원조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IATI로 대표되는 국제 담론을 국내사회의 제도에 적실하게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제도를 기반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원조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고 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 위와 같은 지수체계를 구성했다. 즉, KATI 지수는 원조투명성을 단순 '정보 공개' 여부로만 측정하지 않고, 대중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쉽게 원조정보를 재가공하여 제공하는지 여부와(이용편의성), 향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투명성 제도 구

〈그림 4〉 KATI 지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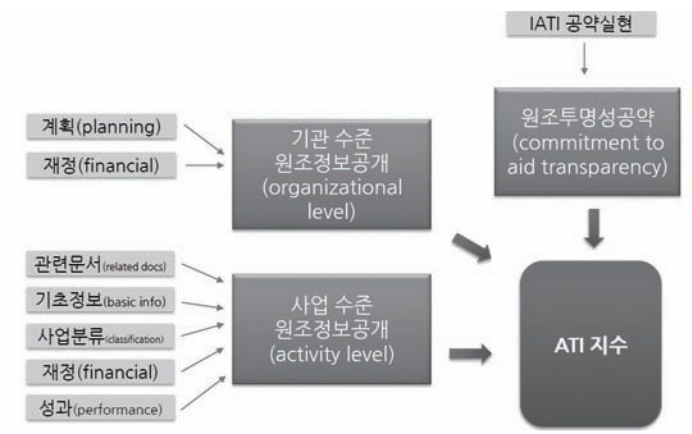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축)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원조투명성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다.

이는 〈그림 5〉에 나와 있는 ATI 지수체계와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ATI 지수는 △원조투명성공약 △기관 수준 원조정보공개 △사업 수준 원조정보공개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항목별 세부지수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KATI와 ATI 지수의 전체구성을 보면 [KATI – IATI 공약이행] 항목은 [ATI – 원조투명성공약]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ATI – 기관 · 사업

〈그림 5〉 ATI 지수 구성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수준 원조정보공개] 항목에 속하는 지수의 대부분은 KATI 지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KATI – 원조 관련 정보공개] 항목으로 재편성됐다.

즉, PWYF의 경우 IATI 기준(standard)에 따른 정보공개사항을 크게 '기관 수준'과 '사업 수준'으로 나누어 지수로 구성했다면, ODA Watch는 이를 △정책문서 △기초사업정보 △상세사업정보 △예산정보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원조 정보의 층위가 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즉, 원조자금을 조성하는 납세자인 공여국의 일반 대중이나 원조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수원국 주민들이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수준의 정보'와 달리, 계약문서(contract)나 입찰결과(tender) 등과 같은 '상세 수준의 정보'는 직접적으로 동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 수원국 정부나 수행기관, 공여국 · 수원국 감시단체 등에게는 매우 필요한 자료인 반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동일한 중요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진은 이를 별도의 소그룹으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KATI 지수를 구성하는 지수별 상세 기준(criteria)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장에서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2) 지수 항목

KATI는 총 57개의 지수로 구성돼있다. 4개의 대분류와 13개의 소항목을 지닌다. (〈표 5〉 참조) 참고로 KATI 지수 측정은 ATI와 동일하게 공여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근거 자료(data source)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전체 구성을 보면 먼저 IATI 공약 이행 항목에서는 2015년 IATI 가입 및 정보공개 공약의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14년을 기준으로 아직 IATI 미가입국인 한국의 실정에 맞춘 지표로, 2015년 가입 및 2016년 원조정보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일정과 맞추어 향후 점차 수정 · 보완해나가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원조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항목의 경우 크게 △정책 △인력 △예산 측면으로 나누어 지수를 구성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원조기관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전략을 마련하고, 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평가 · 환류 전략을 보유하며, 기관 경영지침 내 투명성 관련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지를 측정기준으로 삼았다. 인력 측면에서는 원조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본부와 현지사무소에 두고 있는지를, 예산 측면에서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이 요구하는 중기예측성(N+3년도)과 단기예측성(N+1)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각 공여국에 최소 3년가량의 향후지원계획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구성되어, 국내 예산체계에 따르면 N+3년도에 달하는 원조예산안을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지수에서는 상세예산안을 책정하지 않아도, 해당 원조기관이 예상(commitment)하는 향후지원규모를 단순 명시하는 것도 점수에 포함된다.

〈표 5〉 KATI 지수항목구성

항목	세부항목			세부지표
1. IATI 공약이행	한국 원조 IATI 가입 및 정보공개 공약 실현		1	IATI 정보공개 실행계획안 보유
			2	IATI 정보공개를 위한 예산 확보
2. 제도적 기반	정책관련		3	원조투명성 확보 전략
			4	원조사업 평가 및 환류 계획
			5	기관 경영지침 내 원조투명성 항목 명시
	인력관련		6	원조정보관리 전담 직원(본부)
			7	원조정보관리 전담 직원(현지사무소)
	예산관련		8	N+3년 중기 예측 예산규모 (중기예측성)
			9	N+1년 단기 예측 예산규모 (단기예측성)
3. 정보공개	정책		10	기관 중(장)기 전략
			11	원조 배분(aid allocation) 정책
			12	원조 조달(procurement) 규정
	사업	기초 정보	13	사업명
			14	사업설명(description) 및 목적
			15	사업시행기간(예정)
			16	사업시행기간(실제)
			17	사업지
			18	섹터
			19	구속성 원조 여부
			20	무·유상원조 여부
			21	양자·다자원조 여부
			22	사업형태
			23	사업분야
			24	사업발굴방식
			25	사업담당자 정보
			26	사업시행기관 정보
			27	현지 파트너 정보
			28	사업추진현황
		상세 정보	29	MOU 체결문서
			30	계약(Contract) 문서
			31	입찰(tender) 결과
			32	계약조건(conditions)
			33	사업식별코드(Unique ID)
			34	예산분류코드(Budget ID)
			35	사전타당성조사결과 (impact appraisal)
			36	사업결과보고서
			37	사업평가보고서
			38	환경영향평가보고서
			39	연례보고서
	예산	예산안	40	N년도 예산안 (전체규모 공개)
			41	N년도 예산안 (지역별 규모 공개)
			42	N년도 예산안 (국가별 규모 공개)
			43	N년도 예산안 (사업별 규모 공개)
		결산	44	결산(안) 결과 (전체규모 공개)
			45	결산(안) 결과 (지역별 규모 공개)
			46	결산(안) 결과 (국가별 규모 공개)
			47	결산(안) 결과 (사업별 규모 공개)
		감사	48	회계감사보고서
4. 이용편의성	정보집약성	분류	49	연도별 정보분류
			50	섹터별 정보분류
			51	지역별 정보분류
			52	형태별 정보분류
		연계	53	사업정보 연계
	정보접근성		54	데이터소스 제공
			55	정보접근채널 다양화
			56	오픈파일포맷(XML 등) 제공
			57	현지어·영어 제공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셋째로 원조관련 정보공개 항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TI의 기관 · 사업수준 원조정보공개 항목과 세부지표구성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특히 본 항목은 IATI 기준(standard)에 따라 각 공여국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지수화한 것이다. KATI의 경우 이를 사업명, 사업설명, 사업분야 등과 같은 '기초 정보'와 MOU, 계약문서(contract), 입찰결과(tender)와 같은 '상세 정보', 그 외 정책, 예산 등 총 4개 소그룹으로 분류했다. 특히 KATI는 예산 정보의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 본 그룹을 다시 △예산 △결산 △감사정보로 나누었으며, 예 · 결산 관련 지수를 △전체 △지역 △국가 △사업별 층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여기관으로 하여금 매우 상세한 예산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로 이용편의성의 경우 KATI에서 새롭게 측정을 시도하는 항목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조정보가 대중에게 '어떠한 방식(how)'으로 공개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정보집약성은 〈대분류 3. 원조관련 정보공개〉의 기초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연도별 △섹터별 △지역별 △형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와 서로 연계(linked data)되어 제공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정보접근성의 경우 만인이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데이터소스(full URL)의 추적이 가능하고, 윈도우 익스플로어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나 크롬 등을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는지 여부를 세부 지수로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재가공할 수 있도록 파일포맷(file format)을 IATI 공식 포맷인 XML나 엑셀(excel) 등으로 공개하는지와 핵심 사업정보의 경우 영어와 현지어로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측정한다.

(3) 지수 측정방식

KATI는 점수 측정 시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본 지수의 4대 항목 중, △IATI 공약 이행 △투명성 제도 구축 항목은 공여기관 내 문서 유/무 여부로, △원조관련 정보공개 △이용편의성 항목은 공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해당정보 공개 유/무로 각각 측정한다. 앞서 살펴본 ATI 지수 또한 △원조투명성에 대한 공약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 자료(primary data)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점수 측정 활용하고 있다.

위 측정방식과 관련하여 ODA Watch가 자문위원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내 개발협력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을 당시, 정성평가 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다수로부터 제기됐다. 연구진 또한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원조투명성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측정해내기 위해서는 질적 평가방식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현 단계에서 KATI의 측정방식을 정량평가로 한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한국 국제개발협력사회 내 원조투명성에 관한 인식 형성과 실질적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무 ·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KOICA와 EDCF의 경우 IATI 가입을 비롯한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차원의 인지 수준이 높고, 제도적 준비가 비교적 충실히 이

뤄져온 반면, 소규모로 원조사업을 집행하는 여러 주무부처의 경우 원조투명성의 개념을 기관에 내제화하는데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KATI를 개발하게 된 동기와 요인 자체가 국내 현황을 적실하게 읽어내기 위한 것이었던 당초 목적에 따라 정량평가 방식으로 기관 내 보유 및 홈페이지 공개 유/무 여부에 의거해 점수를 측정하되, 2015년 이후 IATI 공약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2) KATI와 ATI 지수 비교

〈표 6〉은 KATI와 ATI 세부지수를 상호 비교해놓은 것이다. 〈표 6〉에서 KATI 기준으로 10~24번, 26~27번, 29~38번, 49번에 해당하는 지수가 바로 ATI와 KATI가 교집합으로 공유하는 항목이다. 이 지수들의 수는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총 30개이다. 동 지수는 국제사회의 공통 기준인 IATI 기준(standard)에 따른 정보공개항목과도 일치한다.

아래 〈표 8〉에서 설명한 4개의 지수는 〈표 6〉에서 제시한 ATI 기준 1,2,3,3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국내 현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구성한 것이다. KATI는 기존 국가별 IATI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각 공여기관 별 IATI 정보공개계획안으로 바꾸었고, ATI 지수가 강조하는 재정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단년도 체계인 한국 예산제도 하에서 현실 가능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조정했다. 일례로 KATI 지수의 경우, 중기예측성은 향후 3년간 해당 공여기관의 총 예측지원규모만 명시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TI의 경우 중장기예산규모를 예산안처럼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ATI의 경우 정보접근성 항목을 개별지수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KATI 지수에서는 이를 소분류 단위로 상승시켰다. 이는 KATI를 통해 정보접근성 개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표 6〉에서 KATI 기준으로 2~7번, 25번, 28번, 39번, 45번, 48번, 50~58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포함시킨 지수이다. 〈표 6〉에 명시된 KATI의 소분류체계를 보면, 새로운 지수항목의 상당수가 △제도적 기반과 △이용편의성 항목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KATI에 새롭게 포함된 지수는 〈표 9〉와 같이 총 22개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ATI 중, KATI 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지수는 총 4개로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의 1. 정보공개법(FOIA) 유무의 경우 국가별 원조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므로 제외하였고, 2. 중장기세부예산안의 경우 연도별, 사업별 중기 상세예산계획을 요구하는 지수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예산체계와 맞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사업의 연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을 명시하거나 4. 거래(transaction) 단위별로 상세 지출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아직 IATI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항목이기에 KATI에서 제외됐다.

〈표 6〉 KATI와 ATI 지수 비교

항목	세부항목			세부지표
1. IATI 공약이행	한국 원조 IATI 가입 및 정보공개 공약 실현		1	IATI 정보공개 실행계획안 보유
			2	**IATI 정보공개를 위한 예산 확보**
2. 제도적 기반	정책관련		3	**원조투명성 확보 전략**
			4	**원조사업 평가 및 환류 계획**
			5	**기관 경영지침 내 원조투명성 항목 명시**
	인력관련		6	**원조정보관리 전담 직원(본부)**
			7	**원조정보관리 전담 직원(현지사무소)**
	예산관련		8	N+3년 중기 예측 예산규모 (중기예측성)
			9	N+1년 단기 예측 예산규모 (단기예측성)
3. 정보공개	정책		10	기관 중(장)기 전략
			11	국별협력전략
			12	원조 배분(aid allocation) 정책
			13	원조 조달(procurement) 규정
	사업	기초 정보	14	사업명
			15	사업설명(description) 및 목적
			16	사업시행기간(예정)
			17	사업시행기간(실제)
			18	사업지
			19	섹터
			20	구속성 원조 여부
			21	무·유상원조 여부
			22	양자·다자원조 여부
			23	사업형태
			24	사업분야
			25	**사업발굴방식**
			26	사업담당자 정보
			27	사업시행기관 정보
			28	**현지 파트너 정보**
		상세 정보	29	사업추진현황
			30	MOU 체결문서
			31	계약(Contract) 문서
			32	입찰(tender) 결과
			33	계약조건(conditions)
			34	사업식별코드(Unique ID)
			35	예산분류코드(Budget ID)
			36	사전타당성조사결과 (impact appraisal)
			37	사업결과보고서
			38	사업평가보고서
			39	**환경영향평가보고서**
			40	연례보고서
	예산	예산안	41	N년도 예산안 (전체규모 공개)
			42	N년도 예산안 (지역별 규모 공개)
			43	N년도 예산안 (국가별 규모 공개)
			44	N년도 예산안 (사업별 규모 공개)
		결산	45	**결산(안) 결과 (전체규모 공개)**
			46	**결산(안) 결과 (지역별 규모 공개)**
			47	**결산(안) 결과 (국가별 규모 공개)**
			48	**결산(안) 결과 (사업별 규모 공개)**
		감사	49	회계감사보고서
4. 이용편의성	정보집약성	분류	50	**연도별 정보분류**
			51	**섹터별 정보분류**
			52	**지역별 정보분류**
			53	**형태별 정보분류**
		연계	54	**사업정보 연계**
	정보접근성		55	**데이터소스 제공**
			56	**정보접근채널 다양화**
			57	**오픈파일포맷(XML 등) 제공**
			58	**현지어·영어 제공**

	세부지표		항목
1	IATI 정보공개를 위한 내부 이행계획 마련 여부	Implementation schedules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2	중장기예산규모(안)	Total organisation budget	기관 수준의 원조정보
3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	Commitments	
4	원조 전반에 관한 전략문서	Strategy	
5	국별전략문서	Strategy (country / sector)	
6	원조배분정책	Allocation policy	
7	조달 정책	Procurement policy	
8	사업명	Title	사업 수준의 원조정보
9	사업설명	Description	
10	사업목적	Objectives	
11	사업시행기간(예정)	Planned dates	
12	사업시행기간(실제)	Actual dates	
13	사업 시행 지역 정보	Sub-national location	
14	섹터	Sectors	
15	구속성 원조 여부	Tied aid status	
16	무·유상원조 여부	Finance type	
17	양자·다자원조 여부	Collaboration type	
18	사업형태(예산지원, 부채탕감 등)	Aid type	
19	ODA/OOF, private grant 등 자금 흐름 명시	Flow type	
20	사업담당자 정보	Contact details	사업 수준의 원조정보
21	사업 시행기관 정보	Implementer	
22	사업(프로젝트)별 추진현황	Current status	사업 수준의 원조정보
23	MOU 체결문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4	계약(Contract) 문서	Contracts	
25	입찰(tender) 결과	Tenders	
26	사업 거래조건	Conditions	
27	사업식별코드(Unique ID)	Unique ID	
28	예산분류코드(Budget ID)	Budget ID	
29	사전타당성 조사	Impact appraisals	
30	결과 보고서	Results	
31	평가 보고서	Evaluations	
32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기관 수준 정보
33	각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 명시	Budget docs	사업 수준 정보
34	회계감사보고서	Audit	기관 수준 정보
35	정보 접근가능성 여부	Accessibility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36	정보공개법 내용과 질	Quality of FOI legislation	
37	중장기 세부 예산안	Disaggregated budget	기관 수준 정보
38	각 사업의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명시	Budget*	사업 수준의 원조정보
39	거래(transaction) 단위별 지출정보 공개 여부	Disbursements & expenditures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표 7〉 KATI와 ATI 지수의 공통 세부지수 (30개)

	KATI와 ATI 지수의 공통 세부지수	
1	원조 전반에 관한 전략문서	Strategy
2	국별전략문서	Strategy
3	원조배분정책	Allocation policy
4	조달 정책	Procurement policy
5	사업명	Title
6	사업설명	Description
7	사업목적	Objectives
8	사업시행기간(예정)	Planned dates
9	사업시행기간(실제)	Actual dates
10	사업시행 지역 정보	Sub-national location
11	섹터	Sectors
12	구속성 원조 여부	Tied aid status
13	무 · 유상원조 여부	Finance type
14	양자 · 다자원조 여부	Collaboration type
15	사업형태(예산지원, 부채탕감 등)	Aid type
16	ODA/OOF, private grant 등 자금 흐름 명시	Flow type
17	사업담당자 정보	Contact details
18	사업 시행기관 정보	Implementer
19	MOU 체결문서	MOU
20	계약(Contract) 문서	Contracts
21	입찰(tender) 결과	Tenders
22	사업 거래조건	Conditions
23	사업식별코드(Unique ID)	Unique ID
24	예산분류코드(Budget ID)	Budget ID
25	사전타당성 조사	Impact appraisals
26	결과보고서	Results
27	평가보고서	Evaluations
28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29	각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 명시	Budget docs
30	사업추진현황	current status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표 8〉 KATI 지수 중 ATI를 국내에 맞게 수정 · 보완한 지수 (4개)

	KATI 지수	ATI 지수
1	기관별 IATI 정보공개계획안 보유	국별 IATI 정보공개 이행계획 마련
2	N+3년 중기 예측 예산규모 (중기예측성)	중장기예산규모(안) +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
3	N+1년 단기 예측 예산규모 (단기예측성)	
4	정보접근성(소분류 항목) – 데이터소스 제공 – 정보접근채널 다양화 – 오픈파일포맷 제공 – 현지어 · 영어 제공	정보접근성(개별 지수)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표 9〉 KATI 지수 중 새롭게 개발한 지수 (22개)

	KATI와 ATI 지수의 공통 세부지수
1	IATI 정보공개를 위한 예산 확보
2	원조투명성 확보 전략
3	원조사업 평가 및 환류 계획
4	기관 경영지침 내 원조투명성 항목 명시
5	원조정보관리전담직원(본부)
6	원조정보관리전담직원(현지사무소)
7	사업발굴방식
8	현지파트너 정보
9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0	결산(안)결과(전체규모공개)
11	결산(안)결과(지역별규모공개)
12	결산(안)결과(국가별규모공개)
13	결산(안)결과(사업별규모공개)
14	연도별 정보분류
15	섹터별 정보분류
16	지역별 정보분류
17	형태별 정보분류
18	사업정보 연계
19	데이터소스 제공
20	정보접근채널 다양화
21	오픈파일포맷(XML 등) 제공
22	현지어 · 영어 제공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표 10〉 KATI 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ATI 기존 지수 (4개)

	KATI 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ATI 기존 지수	
1	정보공개법 내용과 질	Quality of FOI legislation
2	중장기 세부 예산안	Disaggregated budget
3	사업의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명시	Budget*
4	거래(transaction) 단위별 지출정보 공개	Disbursements & expenditures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3) KATI 지수 및 가중치 산출방안

(1) KATI 지수 산출

KATI는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과 항목별로 종합하여 최종 지수를 산출한다. 위의 〈표 11〉은 KATI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11〉 KATI 지수의 구성

항목	세부항목	설명	지표 수	
IATI 공약이행	IATI 가입 및 공약 실현	IATI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여부	2	2
제도적 기반	정책관련	별도의 전략 · 평가 등 계획보유 여부	3	7
	인사관련	원조정보관리 담당직원 보유 여부	2	
	예산관련	중장기 예산규모의 예측가능성 여부	2	
정보공개	정책문서	원조관련 사업기획 공개여부	3	39
	기초정보	원조관련 필수 기초정보 공개여부	16	
	상세정보	원조관련 상세정보 공개여부	11	
	예산	원조관련 예산 정보 공개여부	9	
이용편의성	정보집약성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	5	9
	정보접근성	정보 전달방식의 다양성 확보 여부	4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KATI의 산출은 〈그림 6〉과 같이 각 세부항목과 항목의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합산방식을 따랐다.

〈그림 6〉 KATI 지수 산출 방식

가중합산 지수점수 = $= \alpha_1 \times \beta_1 + \alpha_2 \times \beta_2 + \cdots\cdots + \alpha_i \times \beta_i$

α_i = 가중치
β_i = 지표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2) KATI 가중치 산출방안

① 가중치 결정

• 가중치 결정방법

가중치 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이용되는데, 대체로 통계적 분석을 통한 가중치 부여방법과 전문가 판단에 따른 가중치 부여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통계적 분석을 통한 가중치 부여 방법은 단순평균방식과 표준화방법, DEA(data envelope analysis), 요인분석, 군집분석, 선형구조방정식 모형이 대표적이다. 둘째, 전문가 판단에 따른 가중치 부여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델파이기법과 AHP(Analytical Hierarch Process)가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중치 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결정은 어떤 기법과 방법론을 동원하여도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대체로 계량화가 힘든 질적 · 정성 평가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김신복, 1996)과 전문가의 판단은 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홍준현, 1999). 나아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표의 측정단위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하혜수, 1996)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지역발전위원회,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지표를 구성했다. AHP를 이용한 상대적 가중치와 리커드 척도를 이용한 절대적 가중치, 지표의 단순합산방식을 모두 활용했다.

• 주요 분석방법 검토

– AHP를 이용한 상대적 가중치

AHP는 의사결정문제가 다수의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먼저 평가기준을 계층화한 후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정해가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Multi-Criteria Analysis)으로, 다수의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ion)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

려는 방법이 핵심이다(고현우, 2009). AHP는 1970년대 초 T.L. Sas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의사결정할 때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의 원리',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의 원리',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근거한다(Satty, 1995; 한국개발연구원, 2000에서 재인용). AHP는 일반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과 요소의 선정, 개념규정, 질문수립의 단계로 상호 관련시켜 진행하며,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을 계층으로 분류해서 의사결정계층을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 의사결정 요인들 간 쌍대비교를 통한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상위계층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계층의 요인들을 9점 척도로 부여하고,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여기에서 9점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7개에서 2개정도를 가감한 대상에 대하여 혼동하지 않고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고유치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순위를 구할 수 있다(한상린 · 정경식 · 이명성, 2014).

특히, AHP 수행과정에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통해 쌍대비교 결과에서 얻은 행렬의 관계식에서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HP에서는 응답일관성 정도를 비일관성비율로 나타낸다.[3] 비일관성 비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Sasty는 비일관성비율이 0.1 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비율이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한 절대적 가중치

AHP 분석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 계층적 접근과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 등을 바탕으로 각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 측정을 통해 양적 평가기준은 물론 질적 평가기준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비교하는 대안의 수가 n개일 때 둘씩 짝을 지으면, n(n−1)/2개의 문항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안의 수가 10개라면 질문의 수는 45개나 되어 쌍대비교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에 관해 Saaty[2008; 295]도 대안의 수가 많을 경우 절대측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장용창 외4명, 2013에서 재인용).

• 가중치 산정 절차

– AHP 방법

3) $IR = \frac{CI}{RI}$, RI=행렬값에서 산출된 무작위 지수

KATI의 가중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출했다. 먼저 일반적인 AHP 분석단계를 통해 가중치 선정모형을 구성했다. ① 상호 관련된 사항들을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을 설정했다. ② 의사결정 요소간 쌍대비교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는 회의 쌍대비교를 수행하며, 평가척도는 9점 척도를 사용했다. ③ 응답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을 검증했다. ④ 종합적인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을 통과한 설문지에 한해 요소간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했다.

– 분석방법 선택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선택과정에서 AHP분석의 일관성 비율을 이용하는 분석방법을 선택했다. 전문가 분석에 앞서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용역관련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세부항목에 대한 비일관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세부항목은 AHP를 이용한 상대평가가 아닌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아래 〈표 13〉과 같이 세부지수

〈표 12〉 비일관성지수 비율

비일관성지수	항목	세부항목
0.2 이상 비율	11.1%	44.4%

〈표 13〉 지수에 사용된 가중치 산정 방법

항목	세부항목	세부지표
AHP	리커드척도	단순합산=세부항목 가중치/세부지표 갯수

※ AHP(상대적 가중치), 리커드척도(절대적 가중치)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는 대체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지표의 세부항목의 개별 가중치를 단순 분해하여 사용했다.

• 가중치 조사

일반적으로 AHP 조사는 표본이 30개를 넘어서면 응답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본 연구진은 한국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 20인 이내의 풀(pool)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집단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실무자 그룹을 대상

으로 동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자들로 선정했다.

② KATI 가중치 산정 결과

• KATI 항목별 가중치 : AHP 최종 가중치 평균

20명의 전문가 설문결과 비일관성비율(기준: 0.2)를 통과한 설문결과는 16부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상기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1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IATI 공약이행 항목은 13.8%의 가중치, 제도구축 항목은 35.6%의 가중치, 정보공개 항목은 37.5%의 가중치, 이용편의 항목은 13.1%의 가중치가 각각 배분됐다.

〈표 14〉 항목별 가중치: AHP 가중치 결과

	IATI 공약이행	제도 구축	정보 공개	이용 편의	합계	평균	CM
IATI 공약이행	0.13	0.13	0.13	0.15	0.54	0.138	4.00
제도구축	0.37	0.36	0.37	0.33	1.44	0.356	4.00
정보공개	0.38	0.36	0.37	0.38	1.49	0.375	4.00
이용편의	0.12	0.15	0.13	0.14	0.53	0.131	4.00
합계	1.00	1.00	1.00	1.00		1.000	
				RI=	0.89	CI	0.0002
						C Ratio	0.0003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 KATI 세부항목별 가중치 및 점수 구성

KATI를 구성하는 항목, 세부항목, 지표의 가중치 및 점수배분은 다음 〈표 15〉와 같이 도출된다. 여기에서 세부항목은 항목별 점수와 세부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항목 '제도구축'의 세부항목인 '정책관련'은 제도구축의 가중치 35.6과 정책관련 세부항목의 가중치 34.7%를 곱하여 12.3점이라는 점수를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지표는 세부항목별 점수를 지표수로 단순 배분하여 각지표당 점수는 4.1점으로 배분했다.

〈표 15〉 KATI 항목, 세부항목, 지표별 가중치 및 점수배분

항목	세부항목	점수배분		산식	지표수	항목당 점수배분	산식
IATI 공약이행 (13.8)	실행계획	50%	6.9		1	6.9	
	관련 예산	50%	6.9		1	6.9	
제도구축 (35.6)a	정책관련	34.7%b	12.3	X=a*b	3	4.1	=X/3
	인사관련	31.4%c	11.2	=a*c	2	5.6	
	예산관련	33.9%d	12.1	=a*d	2	6.0	
정보공개 (35.6)	정책문서	25.5%	9.6		3	3.2	
	기초사업정보	25.2%	9.4		16	0.6	
	상세사업정보	25.5%	9.6		11	0.9	
	예산	23.8%	8.9		9	1.0	
이용편의성 (13.1)	정보집약성	51.5%	6.7		5	1.3	
	정보접근성	48.5%	6.3		4	1.6	
100점			100점			100점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3. KATI 종합 체계

ODA Watch는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해 〈표 16〉과 같이 KATI 종합 체계를 구성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ODA Watch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의 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인 한국 정부의 원조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원조투명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 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원조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 국민들과 개도국 정부와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6〉 KATI 체계

항목(group)	세부항목 (sub-group)		no.	세부지수	측정방법	가중치	가중치 합산
1. IATI 공약이행	한국 원조 IATI 가입 및 정보공개 공약 실현		1	IATI 정보공개 실행계획안 보유	문서 유/무	6.9%	13.8%
			2	IATI 정보공개를 위한 예산 확보	문서 유/무	6.9%	
2. 원조투명성 제도적 기반	정책관련		3	원조투명성 확보 전략	문서 유/무	4.1%	35.6%
			4	원조사업 평가 및 환류 계획	문서 유/무	4.1%	
			5	기관 경영지침 내 원조투명성 항목 명시	문서 유/무	4.1%	
	인사관련		6	원조정보관리전담직원(본부)	문서 유/무	5.6%	
			7	원조정보관리전담직원(현지사무소)	문서 유/무	5.6%	
	예산관련		8	N+3년중기예측예산규모(중기예측성)	문서 유/무	6.0%	
			9	N+1년단기예측예산규모(단기예측성)	문서 유/무	6.0%	
3. 정보공개	정책		10	기관중(장)기전략	문서 유/무	3.2%	35.6%
			11	원조배분(aidallocation)정책	문서 유/무	3.2%	
			12	원조 조달(procurement) 규정	문서 유/무	3.2%	
	사업	기초정보	13	사업명	홈페이지 유/무	0.6%	
			14	사업설명(description) 및 목적	홈페이지 유/무	0.6%	
			15	사업시행기간(예정)	홈페이지 유/무	0.6%	
			16	사업시행기간(실제)	홈페이지 유/무	0.6%	
			17	사업지	홈페이지 유/무	0.6%	
			18	섹터	홈페이지 유/무	0.6%	
			19	구속성 원조 여부	홈페이지 유/무	0.6%	
			20	무 · 유상원조 여부	홈페이지 유/무	0.6%	
			21	양자 · 다자원조 여부	홈페이지 유/무	0.6%	

〈표 16〉 KATI 체계 (계속)

항목(group)	세부항목 (sub-group)		no.	세부지수	측정방법	가중치	가중치 합산
3. 정보공개	사업	기초정보	22	사업형태	홈페이지 유/무	0.6%	35.6%
			23	사업분야	홈페이지 유/무	0.6%	
			24	사업발굴방식	홈페이지 유/무	0.6%	
			25	사업담당자 정보	홈페이지 유/무	0.6%	
			26	사업시행기관 정보	홈페이지 유/무	0.6%	
			27	현지 파트너 정보	홈페이지 유/무	0.6%	
			28	사업추진현황	홈페이지 유/무	0.6%	
		상세정보	29	MOU 체결문서	홈페이지 유/무	0.9%	
			30	계약(Contract) 문서	홈페이지 유/무	0.9%	
			31	입찰(tender) 결과	홈페이지 유/무	0.9%	
			32	제약조건(conditions)	홈페이지 유/무	0.9%	
			33	사업식별코드(Unique ID)	홈페이지 유/무	0.9%	
			34	예산분류코드(BudgetID)	홈페이지 유/무	0.9%	
			35	사전타당성조사결과(impactappraisal)	홈페이지 유/무	0.9%	
			36	사업결과보고서	홈페이지 유/무	0.9%	
			37	사업평가보고서	홈페이지 유/무	0.9%	
			38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홈페이지 유/무	0.9%	
			39	연례보고서	홈페이지 유/무	0.9%	

〈표 16〉 KATI 체계 (계속)

항목(group)	세부항목 (sub-group)		no.	세부지수	측정방법	가중치	가중치 합산
3. 정보공개	예산	예산안	40	N년도예산안(전체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35.6%
			41	N년도예산안(지역별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42	N년도예산안(국가별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43	N년도예산안(사업별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결산	44	결산(안)결과(전체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45	결산(안)결과(지역별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46	결산(안)결과(국가별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47	결산(안)결과(사업별규모공개)	홈페이지 유/무	1.0%	
		감사	48	회계감사보고서	홈페이지 유/무	1.0%	
4. 이용편의성	정보 집약성	분류	49	연도별 정보분류	홈페이지 유/무	1.3%	13.1%
			50	섹터별 정보분류	홈페이지 유/무	1.3%	
			51	지역별 정보분류	홈페이지 유/무	1.3%	
			52	형태별 정보분류	홈페이지 유/무	1.3%	
		연계	53	사업정보 연계	홈페이지 유/무	1.3%	
	정보접근성		54	데이터소스 제공	홈페이지 유/무	1.6%	
			55	정보접근채널 다양화	홈페이지 유/무	1.6%	
			56	오픈파일포맷(XML 등) 제공	홈페이지 유/무	1.6%	
			57	현지어 · 영어 제공	홈페이지 유/무	1.6%	

* 출처: ODA Watch 연구팀 자체작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현우. 2009. “SWOT/AHP 분석을 이용한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전략”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2(2).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출범과 향후 추진계획”

_____. 2010. “국제개발협력(ODA) 선진화방안(2010~2015)”

_____. 2014.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_____. 2015. “제 1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장용창 · 이종명 · 홍선욱 · 심원준 · 강대석. 2013.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개발과 우선순위 평가”. 『한국해양환경 · 에너지학회지』 16(3).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박현. 200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한상린 · 전경식 · 이명성. 2014. “서비스 실패 시 회복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HP분석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15(2). 한국서비스경영학회

ODA Watch. 2014. “국무조정실 한국원조투명성지수 개발연구 간담회 회의록”

_____. 2013. “영국 원조투명성 현지조사 출장보고서”

_____. 2013. “한국 원조(ODA)투명성 실태와 개선과제”

_____. 2014. “IATI 가입하면 원조투명성이 높아질까?” ODA Watch Letter (OWL). 94호. http://www.odawatch.net/articlesth/464902

_____. 2014.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할 새로운 개발목표: SDGs” . ODA Watch Letter (OWL). 92호. http://www.odawatch.net/464100

_____. 2014. “2013년 한국 개발원조는 얼마나 투명한가”. ODA Watch Letter (OWL). 83호.http://www.odawatch.net/?mid=articlesth&page=12&document_srl=38433

_____. 2013. “IATI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ODA Watch Letter (OWL). 79호. http://www.odawatch.net/36985

_____. 2013. “이제는 원조투명성을 이야기할 때”. ODA Watch Letter (OWL). 78호. http://www.odawatch.net/36598

2. 국외문헌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CGD). 2014. QuODA(Quality of ODA) Report. Washington D.C.: CGD

_____. 2013. QuODA(Quality of ODA) Report. Washington D.C.: CGD

_____. 2012. QuODA(Quality of ODA) Report. Washington D.C.: CGD

Grolleu, Jean. 2010. "Potential and Fea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Paris, OECD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2011. Complementary roles for the OECD-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_____. 2011. Mapping IATI to donors' Accra commitments on transparency

_____. 2014. Annual Report

OECD, UNDP. 2014.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Progress Report. Paris. OECD. Retrieved from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4314021e.pdf?expires=1434707635&id=id&accname=guest&checksum=3B9CC9E3AE408B88C5FF5DB3173066E4

OECD. 2008. Accra Agenda for Action

_____. 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Paris. OECD

_____. 2011.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_____. 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_____.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Peer Review 2012. Paris. OECD

_____. 2013.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 Global Partnership Monitoring Framework: Indicator Proposal to Measure Transparency". Paris. OECD

_____. 2013.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 Guide to the Monitoring Frame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Paris. OECD

_____. 2014. Mexico Communique

Publish What You Fund(PWYF). 2010. Aid Transparency Assessment 2010

_____. 2011. 2011 Aid Transparency Index

_____. 2012. 2012 Aid Transparency Index

_____. 2013. 2013 Aid Transparency Index

_____. 2014. 2014 Aid Transparency Index

United Nations. 2014. Introduction to the Prooopsal of the Open Working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United Nations.

3. 참고 웹사이트

Development Tracker, http://devtracker.dfid.gov.uk/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http://www.aidtransparency.net/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The Accra Agenda for Action, http://www.oecd.org/dataoecd/30/63/43911948.pdf

II

섹터

Ⅰ. 기후변화와 물 위기: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구상

이지은 (KOICA 기후환경팀 과장)

기후변화와 물 위기: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구상

이지은 (KOICA 기후환경팀 과장)

Ⅰ. 서론

세계적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발전은 기후변화, 재해의 빈발, 환경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악영향이 심각해지고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도 예외 없이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및 지진해일, 2013년 서유럽 대홍수 등 대응이 불가능한 극한규모의 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발전적인 접근 없이는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2012년 6월에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라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재해위험경감을 개발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 등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재해위험경감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물 관련 재해의 경우, UN사무총장 물과 위생 자문위원회(UN Secretary-General's Advisory Board on Water and Sanitation, UNSGAB[1])의 요청으로 2007년 물과 재해 고위급 전문가 패널(High-Level Expert Panel on Water and Disaster)이 형성되었으며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은 본 패널의 활동을 본격화, 가속화하였다. 그간 발생한 많은 자연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대응 및 사후 활동에 이르기까지 재해를 겪으며 깨닫게 된 재해관리 방안 및

1) UNSGAB(UN Secretary's Advisory Board on Water and Sanitation): 물관리, 아프리카 물문제, 물과 위생 등 지구적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UN 사무총장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요 활동영역은 통합수자원관리, 재정, 모니터링, 아프리카, 물과 재해 등 5개 영역으로 분과가 나누어져 있다.

향후 구조적/비구조적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빨리 적용되어야 하며, 지역적 · 국가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재정비되어야함이 강조되었다.

2013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주재로 뉴욕의 UN본부에서 물 관련 재해 특별 세션이 개최되고 물과 재해 리더패널(High-level Expert and Leader's Panel on Water and Disaster, HELP)로 재구성되었으며, 올해 2015년 세계 제7차 대구경북 물포럼 개최를 통해 물 관련 재해 및 위기에 대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이번 물 포럼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 관련 위기에 대해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담당기관인 KOICA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 세계적인 물 위기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개발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2] 현황을 분석하고 KOICA의 대표적인 물관련 ODA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기후변화적응과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미래를 구상하고자 한다.

키워드: 기후변화, 재해위험경감, 개발협력, 물 ODA

II. 기후변화와 물 위기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현황

오늘날의 세계는 다양한 물 문제로 인해 인간의 생존과 경제 활동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의 물 압박은 더 나아가 이로 인한 국제적인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물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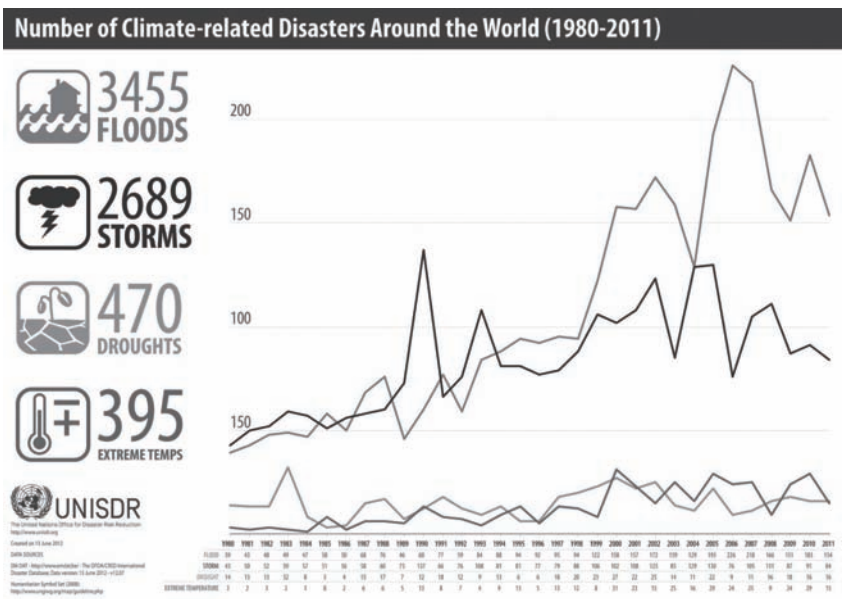
지난 2014년 4월,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영국의 일간지〈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으로 '물과 식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 이

2) 공적개발원조(ODA):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Elliot, 2014[1]).

이는 전 세계의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물 부족과 물 재난이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홍수, 태풍, 가뭄 등)를 해결하고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의 안보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도 위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관련 재해 건수, 1980–2011〉



* 출처: http://www.preventionweb.net/english/professional/statistics/

IPCC는 물 부족이 특히 중부와 남부 유럽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70년까지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2,800만에서 4,4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Alcamo et al., 2007. 또한 지구 평균 온도가 2℃ 상승하는데 재해대응 비용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간 7백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가 들 것이며, 이 금액은 대부분 물 공급과 홍수관리에 필요한 물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World Ban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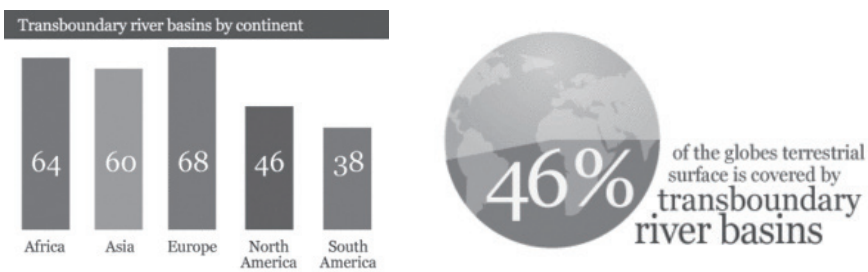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물이 전 지구적으로 풍부하게 고르게 분포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현, 2015).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물에 대한 재난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구상에 있는 물의 총량은 지구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인구는 195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인구의 물 소비량 또한 지난 4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결국 물의 절대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2. 공유하천과 물 분쟁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등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들의 공통점은 큰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문명의 발상은 하천으로부터 기인했으며 물로 시작된 부의 축척과 재분배는 식량안보 및 인간생존에도 위협을 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물은 정치적인 경계로 구분지어질 수 없다. 전 세계는 276개의 국제 공유하천 유역이 있으며(아프리카지역 64개, 아시아지역 60개, 유럽지역 68개, 북아메리카 46개, 남아메리카 38개), 이 중 185개 하천유역은 2~3개의 나라에 걸쳐 흐르고 있다. 또한, 256개 유역은 4개 나라에(92.7%), 20개의 유역은 5개 이상의 나라에(7.2%)걸쳐 흐르며, Danube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개의 나라가 같은 하천유역을 공유하며 흐르고 있다. 이렇듯 지구의 46%가 국제공유하천 유역으로 덮여있는 것이다(UN wat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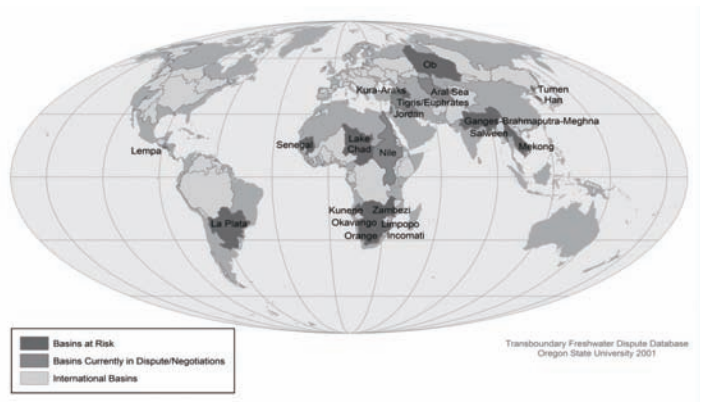


* 출처: http://www.unwater.org/water-cooperation-2013/water-cooperation/facts-and-figures/en/

대부분의 경우 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갈등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Gehrig and Rogers, 2009). 하지만 결국 분쟁의 원인은 물 수요는 증대됨에 비하여 물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데에서 기인하며, 특히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나라들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아랄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 국가들, 나일강을 둘러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요르단 강을 둘러싼 중동지역의 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맞물려 중국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흐르는 메콩강 유역은 항시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막지대의 나라들인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이 관개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 분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사막의 녹화라는 지역적인 이유로 이용 가능한 물을 너무 많이 끌어 썼기 때문에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식량 확보와 맞물려 더 빠른 속도로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어쩌면 다음 중동전의 원인은 '물'이 될지도 모른다.



* 출처: http://www.transboundarywaters.orst.edu.

3.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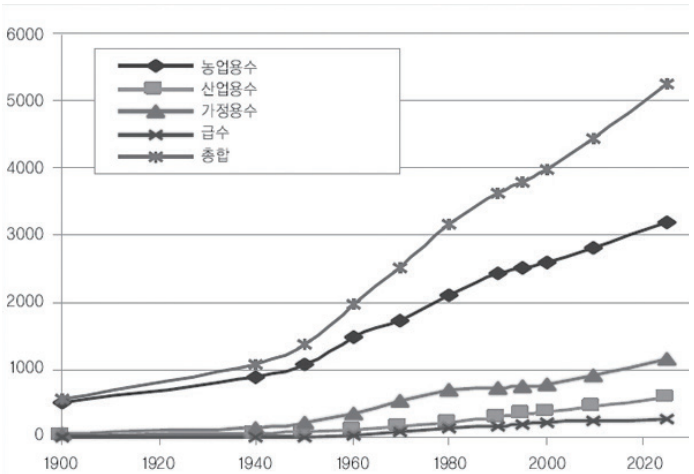
물 부족과 물 재난의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문제, 물 거버넌스 부재에 따른 물 분배와 확보 문제는 적절한 시설 투자 및 인력양성을 통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런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로써는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요인으로 원조와 도시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UN에 따르면 세계인구가 현재 약 70억 명에서 2050년에는 90억 명에 이를 것이며, 특히 도시인구는 현재의 35억 명 수준에서 2050년에 6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증가하는 도시인구의 대부분인 약 30억 명은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집중될 것이며 도시화율도 현재 49%에서 7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N, 2007).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진행, 도시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이들 간에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아래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 세계 부문별 물 사용량〉



(단위: ton/년)

* 출처: 세계 물 미래 시나리오(2013),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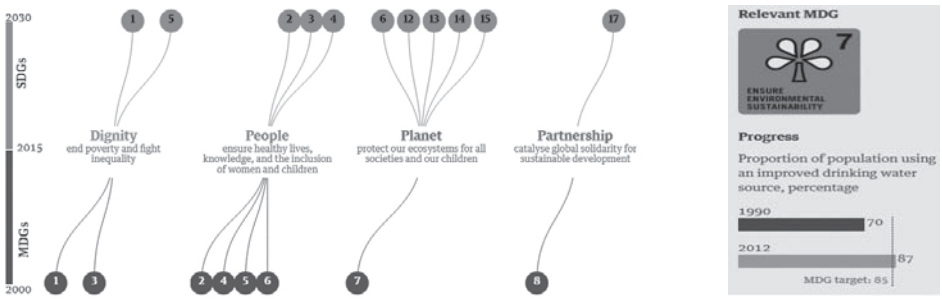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 안보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개발도상국에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물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고 있으며 많은 원조기관들은 2015년에 마무리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안전한 식수접근률 향상과 2014년 7월에 국제적 합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사용량의 식수와 위생보장(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재해경감을 위한 물 ODA

1. 한국의 기여와 KOICA의 물분야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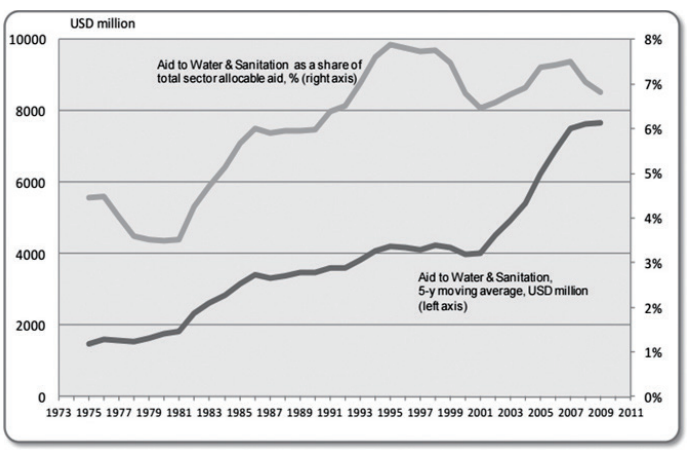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단계 도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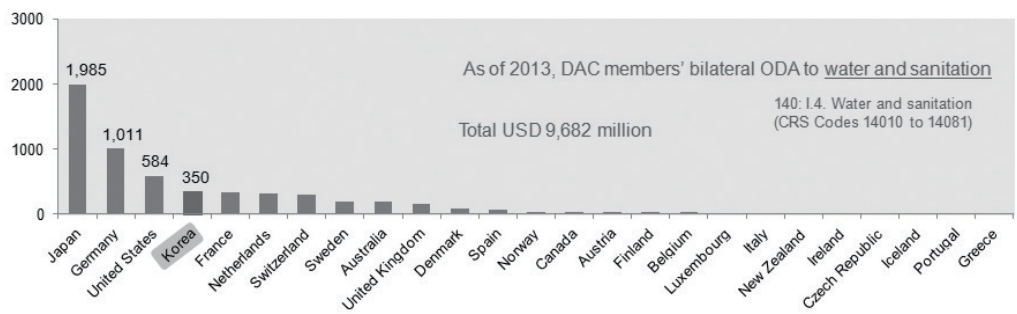


* 출처: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ng-interactive/2015/jan/19/sustainable-development-goals-changing-world-17-steps-interactive

〈전 세계 물 분야 지원 동향〉



* 출처: June 2013, OECD-DAC, www.oecd.org/dac/stats/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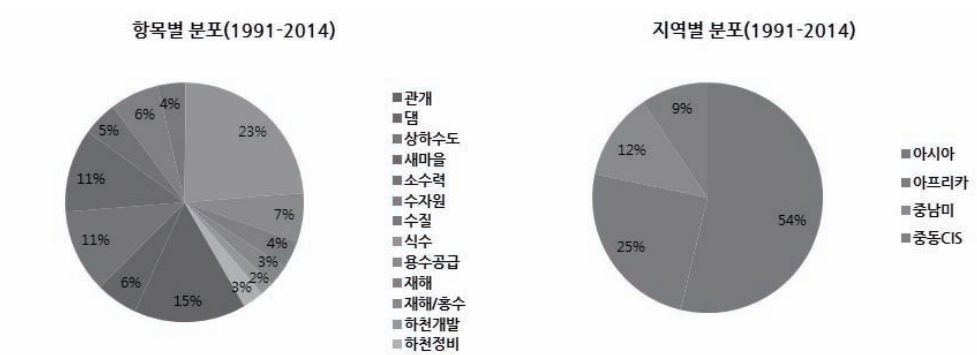
* 출처: June 2013, OECD-DAC, www.oecd.org/dac/stats/water,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적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갖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OECD/DAC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물과 위생분야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OECD/DAC 가입국 중 4번째 순위로 지원하고 있다(OECD, 2013).

1991년 4월 1일에 설립된 KOICA는 '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개도국 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전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NGO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마을단위의 식수개발 사업에서부터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용수 및 관개수로 개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 및 대규모 상하수도 건설 사업까지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KOICA의 물 분야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5개 국가에 약 106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총 2억 2천만 달러 추산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90년대 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 지원위주에서 2000년 후반부터는 아시아지역에 중점 지원하는 추세이다. 물 분야의 지원 사업분야 또한 상수공급 개발 및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소수력발전, 통합수자원관리,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등 다각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지리적 특수성 및 국가발전도, 지역별 특수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OICA의 물 분야 ODA 사업〉



* 출처: KOICA 통계(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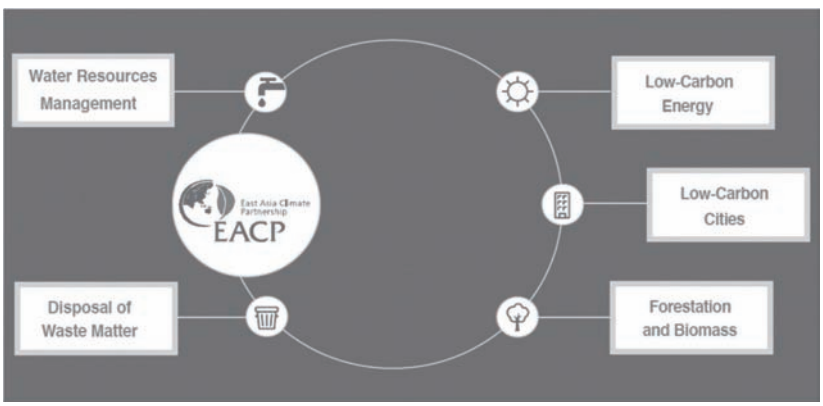
또한, 최근 원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단위의 메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개발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개발도상국의 마스터플랜 및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EDCF 및 GCF, GGGI 등

다자금융기관에서의 재정 지원 가능한 자금을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KOICA의 경험사례: 물관리 랜드마크 사업

KOICA는 지난 2009년, 다국적 컨설팅회사 맥킨지사와 함께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36개 분야를 집중 검토하고 이를 통해 물 관리, 저탄소에너지, 저탄소도시, 산림과 바이오매스, 폐기물처리를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이 중 '물 관리'를 최우선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3]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주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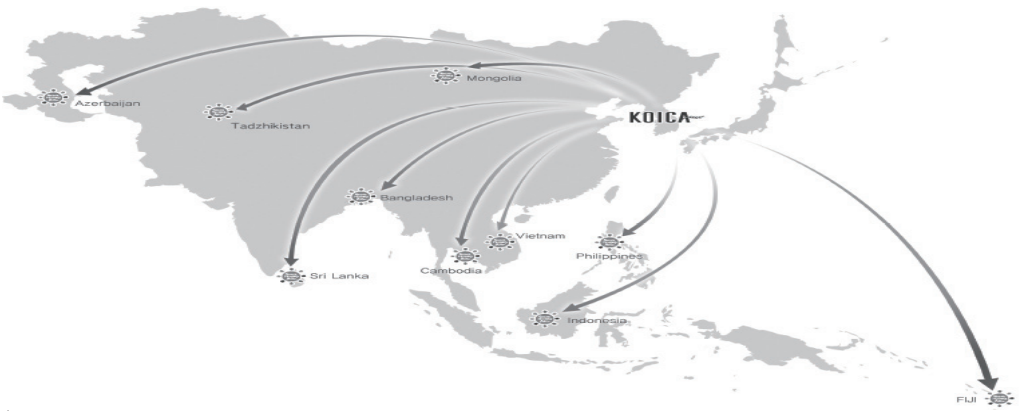


* 출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성과보고서

급격한 산업화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동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을 선정하였다.

3)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2008년부터 총 5년간 약 2억달러의 자금을 공적개발원조 형태로 지원했다.

〈EACP 아시아 지역의 물 관리 사업 현황〉



* 출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성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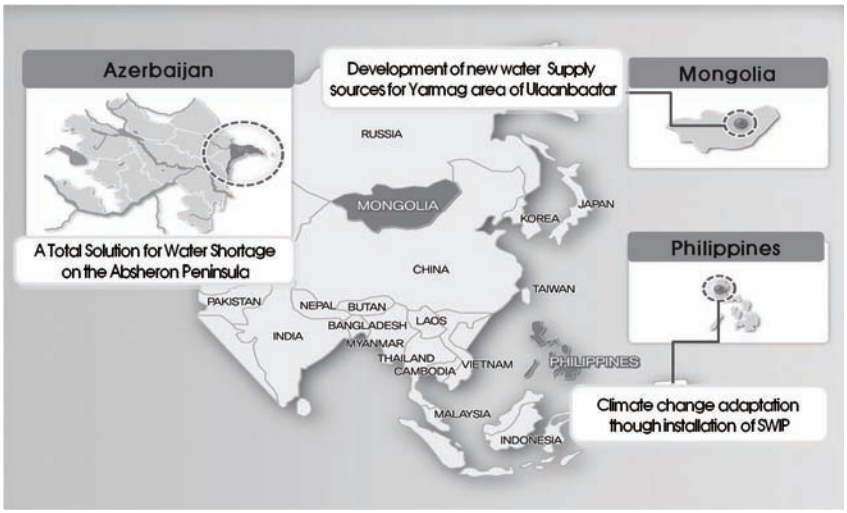
특히,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은 사업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물 문제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물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 즉 랜드마크형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국가로 각각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몽골,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3국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6,78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단일규모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각 나라의 물 문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종합 솔루션 지원으로 나라별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주요지원 국가〉



* 출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성과보고서

〈물 랜드마크 사업 지원 국가〉



* 출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성과보고서

[1] 몽골 울란바타르시 야르막(Yarmag)지역 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 사업 (2011–2013/2,260만 달러)

지속적인 수자원 부족과 유민들의 유입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용수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및 소수력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환경 보건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단순 용수공급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물 관리 및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2]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 (2010–2015/2,167만 달러)

재난 취약국 중에 하나인 필리핀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가뭄 등의 영향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을 통해 자연재해를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증대 시키는 등 농촌지역의 빈곤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빈곤 퇴치를 연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자협력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3] 아제르바이잔 압쉐론반도지역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 (2010-2013/2,618만 달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으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아제르바이잔은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 인접국으로써 향후 국가간 물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수공급으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등 농장물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유무상 원조 연계형 대표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기술의 우수성을 전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전역에 물 관리 사업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3. KOICA의 오늘과 미래

물 분야는 기후변화 및 인구성장, 도시화, 산업화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으로 사업타당성 예측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전 세계국가들이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 이면에서 물을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이용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현, 2015). 이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성화 및 원조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상생의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거버넌스 구축 및 SMART 새마을 운동 등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개도국의 빈곤퇴치, 국제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곧 물의 위기를 바르게 진단하고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KOICA는 지난 과거, 지금 현재의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복지의 기반이며 경제활동에 필수적이 요소가 되는 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전 지구적인 물의 위기를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 분야 ODA사업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상응하는 ODA 규모 확대 노력과 더불어 Post-2015 목표 및 국제사회 가치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물 분야 ODA사업 수행함으로써 KOICA 활동을 통한 국민이 하는 외교를 실현할 것이다.

Ⅳ. 결론

본 고에서 물 관련 재해와 세계의 지원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KOICA의 물 분야 지원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5년은 세계 재해위험경감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MDG 달성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SDG 전환의 해이다. 또한 지난 4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의 물 문제를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가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공여국가 간 정책 선언문 및 지침서 발간 등 물 관련 재해경감과 개발협력을 전략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 관련 재해경감을 위한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략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제한된 분야의 단발성 사업 중심으로 개도국을 지원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여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 관련 분야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타당성 예측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마스터플랜수립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및 법 제도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지속적인 수원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물과 재해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를 실현했을 때, 이 성과를 기반으로 실행모듈의 검증을 거쳐 수원국내 전 지역, 더 나아가 기타 주변국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공적원조에 부합하는 실행모듈의 완성으로 원조사업을 통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가 보유한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개발협력 사업에 접목시킴으로써 개발성과를 제고하는 전문적인 체계 마련의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를 통한 M&E를 통해 효과성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산림, 습지, 탄소순환 등의 생태계시스템을 고려하는 원조개발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인 물 순환 문제의 중심은 생태계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생태계의 지속적인 건강과 물의 순환을 인식하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경제가치 모델이며, 생태계시스템의 상호연결을 고려한 친화적인 경제정책 및 원조사업이 이루어 질 때, 혁신적이고도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공적개발원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대한민국 ODA백서』

이현. 2015. “물분쟁과 국제개발협력”.『개발과 이슈』. 23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 국외문헌

Alcamo, J.; Floerke, M.; Maerker, M. 2007. “Future long-term changes in global water resources driven by socio-economic and climatic changes”. Hydrological Sciences Journal, 52: 247-275.

Elliot, Larr y. 2014. “Climate change will ‘lead to battles for food’, says head of World Bank”.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www.theguardian.co m/environment/2014/apr/03/climate-change-battle-food-head-world-bank

Gehrig, Jason and Rogers, Mark M. 2009. Water and Conflict: Incorporating Peace building into Water Development. Baltimore: Catholic Relief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tatic1.1.sqspcdn.com/static/f/752898/9984899/1296501842833/waterconflict.pdf?token=PvffBdNYRBCxSMf7qMnwebDP1M0%3D

World Bank. 2010. Annual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3. 참고 웹사이트

UN World Water Day, http://www.unwater.org/water-cooperation-2013/water-cooperation/facts-and-figures/en/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III

평가

Ⅰ.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

박수영 (KOICA 연구개발팀 팀장)
김수진 (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고찰

박수영 (KOICA 연구개발팀 팀장)
김수진 (KOICA 연구개발팀 연구원)

목 차

Ⅰ. 개요
Ⅱ. 성과관리와 성과분석모형(Results Framework)
Ⅲ. 성과관리와 논리모형모델(Logframe)
1. 성과관리도구로서의 논리모형모델(Logframe)
2. 논리모형모델(Logframe)의 한계
Ⅳ.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성과관리
1. 변화분석(Theory of Change)의 다양한 정의
2. 변화분석(Theory of Change)의 사용법
1) 국별, 섹터별 정책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3) 평가
3.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논리모형모델(Logframe)
Ⅴ. 결론
1. 체계적인 원조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2.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관리 및 통계 역량 강화 지원

Ⅰ. 개요

개발협력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된 원조피로현상은 원조에 대한 회의를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원조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조예

산 증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점차 강화되었다. 따라서 개발협력관련 기관들은 성과관리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성과분석모형(Results Framework)에 기반한 다양한 성과관리도구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사업의 성과관리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구는 1960년대 미국 USAID에서 고안된 Logical Framework이다. Logical Framework(이하 Logframe)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협력사업이 의도한 소기의 개발성과를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와 함께 기술하도록 작성된다. 이렇게 성과와 측정지표가 함께 기술되기 때문에 Logframe은 성과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Tool)가 된다. 그러나 Logical Framework 자체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00년대부터 Theory of Change(변화분석)[1]에 기초한 성과관리기법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협력성과관리에는 Logframe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Logframe이 갖는 성과분석모형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Theory of Change와 관련된 논의 또한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와 Results Framework 그리고 Logframe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Theory of Change의 정의와 활용법을 논의한 뒤 이러한 새로운 성과관리도구가 우리나라의 원조사업 추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성과관리와 성과분석모형(Results Framework)

국제개발협력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은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효과성이란 일반적으로 대상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에서 효과성은 일반적으로 정책, 전략 또는 사업들이 계획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협력에서 효과성 분석은 정책이나 전략, 사업들이 계획했던 산출물을 도출해냈는가를 확인하는 산출물 분석(output analysis)보다는 각각의 정책이나 전략, 사업이 계획했던 개발성과(results)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개발협력분야에서 사업의 산출물이 아닌 개발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실제 개발협력

1) Theory of Change는 변화이론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 번역은 자칫 Theory of Change를 하나의 별도 학설이나 이론체제로 오해하게 될 소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나 가정들에 대한 분석이라는 Theory of Change 원래의 의미와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분석으로 의역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역의 오류를 줄이고자 변화분석은 그대로 Theory of Change(TOC)로 지칭한다.

사업이 산출물을 도출하고도 성과달성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벽지농촌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 종료 시 초등학교 건립이라는 산출물을 100% 계획대로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초등학교 취학률이나, 졸업률, 문자해독률 등의 개선이라는 개발성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기관들은 정책이나 전략, 사업들이 계획했던 개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실행,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성과중심관리(Results Management)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성과분석모형(Results Framework)은 성과중심관리의 주요 도구(Key Tool)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성과분석모형이란 개발전략 또는 개발사업(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모두 포함)과 같은 특정한 개발행위들이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로 다른 준위의 연쇄적인 성과들에 대한 구체화된 표현(an explicit articulation)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World Bank, 2012), 본 모형의 표현방식은 그림, 표, 또는 서술 등 모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일반적으로 산출물(output), 개발목적(outcome), 그리고 이들을 통해 달성할 장기목표(goal)를 포함한다. 의미는 유사하나 성과를 표현하는 용어들과 구분은 각 기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경우, 개발목적을 중간목표(Intermediate Outcome)로, 장기목표는 목표(Outcome) 또는 영향(Impact)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사용하는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성과분석모형에서 성과란 장기적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세부목적, 목표들과 이들을 위해 실행된 개발행위들(development activities)의 산출물을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성과들 간의 인과관계(Cause-effect Linkage)를 규명하는 작업이 성과분석모형 구성의 핵심요소이다. 실제로, 복잡하고 유동적인 개발협력 환경에서 일련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잘 작성된 성과분석모형은 산출물-목적-장기목표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정책이나 사업계획의 당위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

성과분석모형이 논리적으로 작성되면 각 단계별로 달성기한과 함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성과분석모형은 모니터링과 평가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개발협력기관들은 각 사업별로, 그리고 국별전략별로 성과분석모형을 작성, 활용한다 (〈표 1, 2〉참조). 대부분의 개발협력기관들은 각 수원국별 환경과 맥락, 특성, 수원국 정부의 전략 등을 반영하여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개별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개발협력기관들은 국별지원전략과 추진사업의 논리성을 검증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분석모형을 활용한다.

〈표 1〉 국별전략수준의 성과분석모형의 일반적인 예시

국가개발목표	이슈/장애물/핵심가정	예상 성과	예상 산출물/마일스톤	모니터링 활용
■ 제1국가개발목표 서술 ● 지표 기초선:xxxx(2005) 목 적:xxxx(2010) ● 추가지표 또는 대체지표 기초선:xxxx(2005) 목 적:xxxx(2010) [추가지표를 가지고서술을 지속하거나 다음 장기목표로 이동] ■ 제2국가개발목표 서술 ● 지표 기초선:xxxx(2005) 목 적:xxxx(2010) ● 추가지표 또는 대체지표 기초선:xxxx(2005) 목 적:xxxx(2010) [추가지표를 가지고 서술을 지속하거나 다음 장기목표로 이동]	[국가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핵심 이슈 및 장애요소 파악]	■ 제1성과 서술 ● 지표 기초선:xxxx(2005) 중간선:xxxx(2007) 목 적:xxxx(2010) ● 추가지표 또는 대체지표 기초선:xxxx(2005) 중간선:xxxx(2007) 목 적:xxxx(2010) [추가지표를 가지고 서술을 지속하거나 다음 성과로 이동] ■ 제2성과 서술 ● 지표 기초선:xxxx(2005) 중간선:xxxx(2007) 목 적:xxxx(2010) ● 추가지표 또는 대체지표 기초선:xxxx(2005) 중간선:xxxx(2007) 목 적:xxxx(2010) [추가지표를 가지고 서술을 지속하거나 다음 성과로 이동]	■ 성과분석모형 소요시간 내에 파악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1산출물/마일스톤에 대한 서술 ● 지표(마일스톤이 정량적으로 달성가능한 경우) 기초선:xxxx(2005) 목 적:xxxx(2006) xxxx(2007) xxxx(2008) xxxx(2009) xxxx(2010) ● 추가지표 또는 대체지표 (마일스톤이 정성적으로 달성가능한 경우) [추가지표를 가지고 서술을 지속하거나 다음 마일스톤으로 이동] ■ 제2산출물/마일스톤에 대한 서술 [위와 동일]	[본 정보의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 강조하여 서술한 짧은 설명 제공]

* 출처: World Bank (2012)

특히, 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아래의 〈표 2〉의 성과분석모형과 정량지표를 보다 세분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표 3〉과 같이 구체적인 표로 작성한다. 보다 객관적인 측정 및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산출물, 개발목적, 목표에 대한 기초선조사의 결과데이터, △각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 △사업기간 동안 연도별로 달성해야하는 지표의 수준, △지표출처가 될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 빈도와 방법, 작성책임자 등을 포함 · 정리해야한다. 이를 통해 사업별 목표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개발협력 및 원조사업의 관리 추세이다.

〈표 2〉 사업수준의 성과분석모형의 일반적인 예시

프로젝트 개발목표	프로젝트 개발 목표 지수	성과모니터링 활용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성 증대 프로젝트 시행 지역 내 목표 작물에 대한 시장접근성 증대	•목표 가치사슬 내 작물의 평균 산출량(바나나, 쌀, 커피 및 유제품) (단위: 각각 톤/헥타르/소 한 마리당 리터값)	•프로젝트 개발 목표 지수는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위 프로젝트 또는 다른 프로젝트 투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수준을 보여줌 – 농작물 생산성 제고(산출량 증대) – 목표 가치사슬의 시장 잉여(시장거래된 생산량 중 일부) 발생
중간 성과	**성과 지표**	**성과 모니터링 활용**
•구성요소1: 농경기술이전 및 시장과의 연계	•생산과정, 수확 후 관리, 공정 등 전 단계에 해당하는 신기술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부(여성/남성)의 참가 비중 •우유생산을 위해 축산업에 종사중인 생산자 비중 •시장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그룹/협회/협동조합 비중 •신기술패키지 및 시장연계 달성을 통한 프로젝트 직접 수혜자의 수 •신기술패키지 및 시장연계 달성을 통한 프로젝트 간접 수혜자의 수	본 지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나타냄 •농부들의 신기술 도입 지원에 대한 본 프로젝트의 효과성 •지식전달 및 자문서비스의 효과성 •생산자그룹/협회/협동조합의 상업용 작물 생산 정도 •본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의 다른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하위 프로젝트 종료에 대한전반적인 효과성

* 출처: World Bank (2012)

즉, 성과분석모형이란 개발협력정책이나 전략, 사업이 기획한 산출물과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측정하여 정책, 전략,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은 개발행위–산출물–목적–장기목표 간의 원인과 결과관계를 명료하게 나타냄으로써 정책, 전략, 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기획의 합리성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협력관련 기관들은 국별전략과 사업기획문서(Project Document)의 성과관리를 동 모형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방법을 결합시킨 사업성과분석모형을 사용한다.

〈표 3〉 사업별 성과관리의 정량지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예시

프로젝트 성과 지표		기초선	목표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목표)
작물의 평균 산출량							
A	쌀(톤/헥타르)	2.5	2.8	3.3	3.8	4.0	4.0
B	바나나(톤/헥타르)	9.0	NA	12	14	16	16
C	커피(체리 톤/헥타르)	0.4	0.5	0.6	0.7	0.8	0.8
D	우유(리터/연간)	360	400	500	650	800	950
E	참여생산자들에 의해 시장판매된 가치사슬 목표치 대비 작물의 생산량 비율	10	12	18	22	26	30
			목표치 (누적값)				
농작물 생산성 및 시장판매 프로세스							
F	생산과정, 수확 후 관리, 공정 등 전 단계에 해당하는 신기술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부(여성/남성)의 참가 비중	10	15	30	45	60	70
G	우유생산을 위해 축산업에 종사중인 생산자 비중	10	15	30	45	60	70
H	시장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그룹/협회/협동조합 비중	0	2	5	10	15	20

정보수집 및 보고			
	정보수집 빈도 및 보고	정보수집 방법	정보수집 담당책임자
작물의 평균 산출량			
A	수확기 말	생산자 설문조사 (연간)	PCU
B	연1회 판매기간 말	생산자 설문조사 (연간)	PCU
C	연1회 판매기간 말	생산자 설문조사 (연간)	PCU
D	연1회 판매기간 말	생산자 설문조사 (연간)	PCU
E	연1회 판매기간 말	생산자 설문조사 (연간)	PCU
농작물 생산성 및 시장판매 프로세스			
F	수확기/연1회	수확기/연1회 표본조사	IPCU/PSP
G	연1회	표본조사(연간)	IPCU/PSP
H	연1회	표본조사(연간)	IPCU/PSP

* PCU: Project Coordination Unit

** IPCU: Inter-Provincial Coordinating Unit/PSP: Private Service Providers

출처: World Bank (2012)

Ⅲ. 성과관리와 Logframe

1. 성과관리도구로서의 Logframe

우리나라 개발협력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과분석모형은 Logframe[2]이다. Logframe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개발협력사업 성과 관리 도구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 USAID에서 고안된 logframe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4열과 4행의 표이다(〈표4〉 참조).

〈표 4〉 Logframe의 구조와 내용

Narrative Summary	Objectively Veriable Indicators(OVI)	Means of Verification(MOV)	Assumptions
Goal(목표)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섹터수준 또는 국가수준의 장기적 개발목표 작성방법: 장기에 걸쳐 이미 성취된 것처럼 과거시제 동사로 시작	상위수준 파급효과, 즉 목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지표 등의 방법 (수량, 질, 시간 포함)	필요정보 수집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빈도, 정보 수입원(source)기입	프로젝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족되어야할 가정
Purpose(목적) 프로젝트의 직접적 목적, 프로젝트의 직접적 결과에 의한 (수혜자그룹의) 행동, 태도, 자원 등의 측면의 통합적이며 측정가능한 변화 작성방법: 이미 성취된 것처럼 과거 또는 현재시제 동사로 시작	각각의 목적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지표 등의 방법 (수량, 질, 시간 포함)	필요정보 수집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빈도, 정보 수입원(source)기입	목적에서 목표로 연계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가정
Output(산출물) 목적달성의 위해 프로젝트가 산출해야하는 결과물, 서비스 또는 생산물 작성방법: 이미 성취된 것처럼 과거 또는 현재시제 동사로 시작	산출물 생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지표 등의 방법.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의 결과물임. (수량, 질, 시간 포함)	필요정보 수집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빈도, 정보 수입원(source)기입	산출물에서 목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정
Activities (사업구성요소/개발활동) 산출물 생산을 위해 프로젝트가 해야하는 활동 작성방법: 생산해야하는 것을 명사형으로 표현	Input(투입/투입자원) 개발행위의 결과는 산출물 수준에서 측정되므로 이 칸에는 투입요소를 기입		개발행위에서 산출물로 연계되기 위해 충족되어야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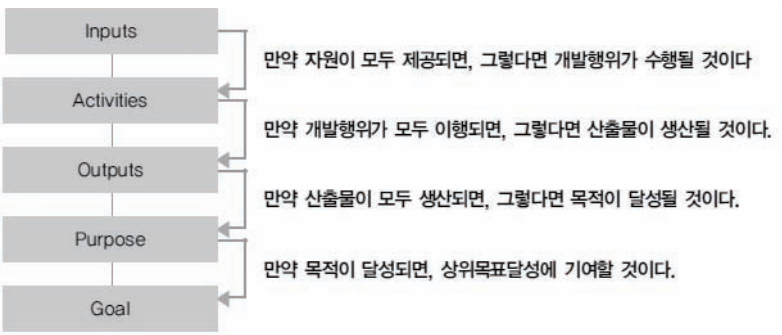
* 출처: 박수영 (2009)

2) 논리모형모델(Logical Framework)의 역사, 개념, 작성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수영 (2009) 참조

그러나, 이 간단해 보이는 표 안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사업 활동들이 달성해야할 사업목적과 개발목표들이 일목요연한 논리관계를 가지고 정리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목적과 목표달성을 측정할 지표와 지표별 입증수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높은 편리성으로 인해 Logframe은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Logframe은 수직 · 수평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논리체계를 갖는다. 수직적 논리체계는 Logframe의 첫 번째 열인 Narrative Summary의 각 행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즉, 개발사업의 투입자원(Inputs)과 사업활동(Activities), 산출물(Outputs), 사업의 개발목적(Purpose), 장기개발목표(Goal)를 설명하는 첫 번째 열인 Narrative Summary가 수직적으로 순차적인 논리체계를 보인다는 것이다(〈그림1〉 참조). 이 수직적 논리체계가 바로 뒷 장에서 설명할 성과분석모형이 가져야할 논리적인 인과관계(If-then Causality)이다.

〈그림 1〉 Logframe의 수직적 논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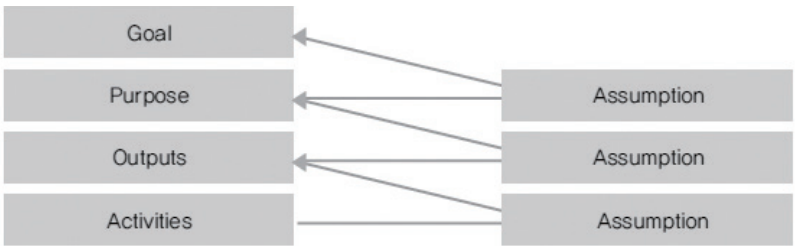


* 출처: 박수영 (2009)

하지만, 이러한 수직적 논리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발협력 사업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Logframe의 네 번째 열인 가정(Assumption)에서 계획 단계에서 추정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정리하여 배치한다.[3] 즉, Logframe의 수직적 논리체계는 Narrative Summary열과 같은 행에서의 Assumption열 간의 수평적 논리관계를 통해 완성된다. 즉 Narrative Summary의 각 행들을 모두 이행하고 동시에 동일한 행의 Assumption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3) Assumption은 각 목표가 한 단계 위의 목표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거나 회피되어야할 위험들을 말하며, 기관에 따라서는 Risks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박수영, 2009).

〈그림 2〉 Logframe의 수직/수평적 논리관계



* 출처: 박수영 (2009)

Logframe은 이러한 수평적, 수직적 논리관계와 함께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OVI)열과 Means of Verification(MoV)열을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즉, Logframe은 성과분석모형 도구 중 하나이며, 각 개발협력기관들은 Logframe을 기관 특성과 입장에 맞추어 약간씩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DFID의 경우, 2009년도에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를 위한 표준 Logframe형식을 Excel에 따라 연도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Logframe을 포함한 성과분석모형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기획된 내부적 논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목적과 목표들이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있는가를 점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계획단계부터 대상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분석하고 가정들을 기술함으로써 사업활동들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Logframe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표를 개발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동시에 하나의 표 안에 사업의 목적과 산출물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가 사업의 핵심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Logframe의 한계

이렇듯 현재 Logframe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Logframe이 갖는 한계를 총 7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Logframe의 첫 번째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개발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실무자가 Logframe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훈련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 참여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Logframe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표 5〉 DFID의 새로운 Logframe 양식

GOAL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Source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Source				
PURPOSE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Assumptions
		Source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Source				
INPUTS (£)	DFID (£)	Govt (£)	Other (£)	Total (£)	DFID SHARE (%)	
INPUTS (HR)	DFID (FTEs)					

OUTPUT 1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Assumption
		Source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Source				
IMPACT WEIGHTING	Indicator	Baseline	Milestone 1	Milestone 2	Target (date)	
		Source				RISK RATING
INPUTS (£)	DFID (£)	Govt (£)	Other (£)	Total (£)	DFID SHARE (%)	
INPUTS (HR)	DFID (FTEs)					

* 출처: DFID (2009)

두 번째로, 이보다 더 중요한 한계는 Logframe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해석한다는 점이다. Logframe은 매우 복잡한 개발환경과 이해관계자들간의 다양한 관계를 매우 단순한 문구와 일직선상의 논리관계로 표현한다. 이러한 지나친 단순화된 논리관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Logframe이 기획단계의 문서로만 작성되고 이후에는 수정, 보완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 번째 한계는 Logframe의 인과관계 논리체계가 매우 서구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문화와 환경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인과관계는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Logframe의 네 번째 한계는 작성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개발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Logframe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을 수행하여 핵심문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역량과 능력을 파악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몇몇 기관에서는 긍정적 분석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

는 역량분석(capacity Analysis)방식이나 긍정적 문제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목표분석(Objective Analysis)을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Logframe은 한편으로 실제 적용 시에도 한계를 보인다. Logframe에 너무 매몰되다보면 사업수행 시 개발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보다는 지표를 측정하고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경직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지게 된다. 개발사업환경은 변화무쌍함을 특징으로 한다. Logframe이 이러한 환경을 적기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계획단계에 설정된 지표 측정과 달성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반감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Logframe은 원래 투입, 산출물, 목적 등 각각의 행동들이 서로 다른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Logframe은 정성분석보다는 정량분석에 치중해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정량화된 지표 달성을 개발목표달성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Logframe의 초창기 개발과 적용을 맡았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현재의 Logframe은 본래 의도되었던 사용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발협력기관들은 거의 변경이 불가능한 표준화된 템플릿을 가지고 Logframe을 완성하는 것을 사업수행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식화된 사용이 Logframe의 한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성과분석도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Ⅳ. 변화분석(Theory of Change)과 성과관리

앞 장에서 서술한 성과분석모형과 Logframe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최근 변화분석(Theory of Change, 이하 ToC)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ToC의 사용은 국제개발에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공여국, 양자 및 다자 개발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NGO, 개발성과 지원(support)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등 폭넓은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합의된 ToC의 정의와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ToC의 다양한 정의와 활용법을 살펴본다.

1. ToC의 다양한 정의

ToC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 중 하나는 ‘ToC란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 사업이 작동하는지에 대

한 이론(Weiss, 1995)' 이다. Anderson (2004)은 Weiss의 정의 보다 구체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이나 개입의 성과와 활동들 간의 관계와 장기목표로 이르는 단계들을 모두 설명하는 가정들에 대한 분석으로 ToC를 정의했다. 이 외에도 ToC는 '지도(Roadmap), 청사진, 변화의 동력(engine of change), 활동분석(theory of action)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Reisman, Jane, Anne Gienapp, and Sara Stachowiak, 2007).

ToC에 대해 합치된 정의는 없지만, 일련의 설명들이 보여주듯이 ToC는 활동과 성과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ToC를 성과관리에 적용하는 사업수행기관들 역시 ToC를 이러한 활동과 성과관의 인과관계로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ToC를 장기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일련의 중·단기 목적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로 정의하고, 성과분석모형의 핵심 논리로 활용한다(World Bank, 2012). DFID는 ToC를 주어진 상황(context)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나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평가 과정에 비판적인 사고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즉, ToC는 활동(activities)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변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이니셔티브들의 논리적 연속상태를 정리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론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평가 전문가인 릭 데이비스(Rick Davies)는 희망했던 특정 성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sequence of events)에 대한 서술로 ToC를 정의하였다(DFID, 2012).

ToC를 실제 지역사회사업 평가에 활용한 ActKnowledge 역시 ToC를 논리적 인과관계로 정의함으로써 논리관계를 정리하여 지도나 표로 도식화한다. 따라서, ToC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논리(programe logic)나 계획(initiative)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ActKnowledge, 2003). ToC는 장기목표를 정의하고 역으로 장기목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단계적으로 도식화되며, 확인된 변화들은 각 목적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인과관계에 따라 도표나 그림으로 보여진다. 즉, ToC는 실제 활용될 때 '논리모형(Logic Model)'의 변종으로 사용되며, '만약 정치경제이슈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건설적인 활동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는 정보의 흐름을 향상시켜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CARE International UK, 2012: p.5)' 와 같은 만약...그렇다면(If...Then)의 관계로 이해된다.

한편, ToC의 확산을 이끌었던 영향력 있는 실무 가이드라인인 The Community builders' Approach to Theory of Change[4]를 저술했던 Anderson(2011)은 ToC를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된 산출물로 정의했다. Anderson(2005)은 기본적인 ToC는 장기성과를 산출하기위해 초

4) 이 가이드라인은 1990년도에 Aspen Institute가 평가자와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래머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론을 적용하여 복잡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평가하고자 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2005년 Anderson에 의해 개발되었다(Connell and Kubisch, 1998).

기 및 중기 성과물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야하는지를 설명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ToC는 변화가 발생할 과정들에 대한 가정들을 보여주고, 바람직한 장기변화를 위해 필요한 단기 및 중기 목적들을 달성할 방법을 구체화하여 문서화한다고 주장하였다. Anderson(2011)은 이를 종합하여 ToC를 지역주민에 의해 도출된 장기목표달성에 필요한 단기 및 중기 변화를 묘사하는 포괄적인 그림을 도출하는 비판적, 분석적 활동들의 산물로 정의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ToC를 일종의 보다 심층적인 사색과정(reflective process)으로 보았다. 즉 변화에 대한 철학과 가치, 세계관 등은 이니셔티브의 성과(outcome)로서의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 가설들을 보다 명료하게 만들어주는데, ToC를 이러한 변화의 철학 및 가치, 세계관 등에 대한 지도(mapping)이자 대화에 기반한 분석(dialogue-based analysis)으로 보는 것이다. Comic Relief 리뷰는 ToC의 변화양상에 대한 모색은 학습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동시에, 변화의 발생과정, 이것이 특정한 상황(context)이나 섹터, 집단 내에서 갖는 함의 등에 대해 계속 진행되는(ongoing) 일련의 사색(reflective)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업 평가방법론과 실제 평가수행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타난 ToC는(Stein and Valters, 2012) 이후 사업투자자들의 사용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점차 개발사업에서 주류화되었다. 그러나, 개발협력에서 ToC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아직 ToC를 유행어로 정도로 취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ToC는 보다 넓고 복잡한 개발협력 상황을 분석하고자하는 개발협력 관련 기관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ToC는 서술(statement)나 문서와 같은 산출물(Product) 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일련의 분석 과정이나 도구(Process or Tool)로 정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ToC는 복잡한 개발협력의 맥락(Context)속에서 특정사업의 장기성과를 도출하는 활동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식 또는 이렇게 분석된 관계를 정리하여 글, 다이어그램, 그림, 표 등으로 나타낸 산출물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으로, ToC는 아래 박스의 다섯 가지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2. ToC의 사용법

ToC적인 사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위 정책 수준에서 정책이 이끌어낼 변화 과정 탐색, 사업 활동의 내부적 논리 설명,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에 대한 가설 성립에 이르기까지 ToC의 사용 범위는 넓다. 이 절에서는 개발정책수립, 개발기관의 전략 수립 또는 사업기획과 평가에서 ToC의 활용방식을 고찰해 본다.

〈BOX 1〉 ToC의 핵심요소

주어진 상황(Context). △사회, 정치, 환경적 조건을 포함한 이니셔티브 상황,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문제들의 현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주어진 상황

장기 변화(long-term change). 이니셔티브가 지원하고자 하는 장기적 변화 및 이를 통한 궁극적인 이익

변화 프로세스/연속(process/sequence of change). 희망하는 장기 성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프로세스 및 변화의 연속

가정(Assumptions).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가정(assumptions). 활동(activities)와 산출물(outputs)이 원하던 방향대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

도표 및 내러티브 요약(Diagram and narrative summary). 논의의 성과를 담아 내는 작업.

* 출처: Isabel Vogel(2012)

1) 국별, 섹터별 정책 분석

ToC의 첫 번째 활용법은 국별 또는 섹터별 전략 수립을 위한 상황분석이다. 상위 단계(high level) 정책 및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원국의 변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상황(context) 및 변화의 조건들을 분석하고, 변화를 위한 여러 가설들을 수립한 뒤, 가설에 따라 변화경로를 세우고 그 경로의 타당성의 입증지표를 확인한다. 이렇게 도출된 ToC 결과를 Logframe 등의 성과분석모형으로 변환하여 정책을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이러한 상위 수준의 ToC 결과를 도식화함으로써 구체적인 국별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generic) 분석이 가능해진다.

ToC는 변화에 대한 넓은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러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사용되어진다. 또한 이러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구체적인 이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입(intervention) 옵션들을 파악하는 기반으로서 활용되거나 평가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 수준의 ToC는 공여기관들의 정책부서 등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2) 사업계획 수립

ToC는 사업계획 수립에도 활용된다.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목표를 세우고 역으로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 및 초기 단계의 목적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다른 목적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ToC는 주로 6단계를 거쳐 수행된다(〈Box 2〉 참조).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ToC 과정을 Logframe수립을 위한 분석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보다 쉽게 이해된다. Logframe이 사업이 대응해야할 개발관련 문제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핵심문제(core problem)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긍정문으로 바꿔 사업이 달성해야할 개발 목표로 변환한다면, ToC는 이와는 정반대로 일단 달성해야할 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목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역으로 추적한다. 또한, Logframe의 분석이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 ToC는 각 행위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용인한다 (〈그림 3〉 참조). 이렇게하여 보다 복잡한 성과관계도가 완성되면 이에 대해 가정을 도출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두 방식이 유사하다.

3) 평가

평가자들은 평가대상별로 기존에 수행된 ToC 과정을 확인하여 선택된 개입의 적절성을 판단해야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들은 의도된 수혜자 그룹에 대한 사업 효과성과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폭넓은 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명확히 이해

〈BOX 2〉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6단계 프로세스

1. 장기목표 도출
2. 역분석을 통해 단기 및 중기 성과들 도출 및 매핑
3. 성과관계도 완성
4. 가정 도출
5. 지표 개발
6. 사업계획 수립

* 출처: Isabel Vogel(2012)

해야 한다. 평가대상으로 선택된 전략이나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입과 다른 선택이 있었는지, 다른 개입은 선택된 개입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위한 ToC는 △원인-결과, △상이한 변화경로, △행위자, △프로그램 작동 메커니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황적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가능토록 한다. ToC는 정책이나 사업의 기획 단계와 집행간의 차이점을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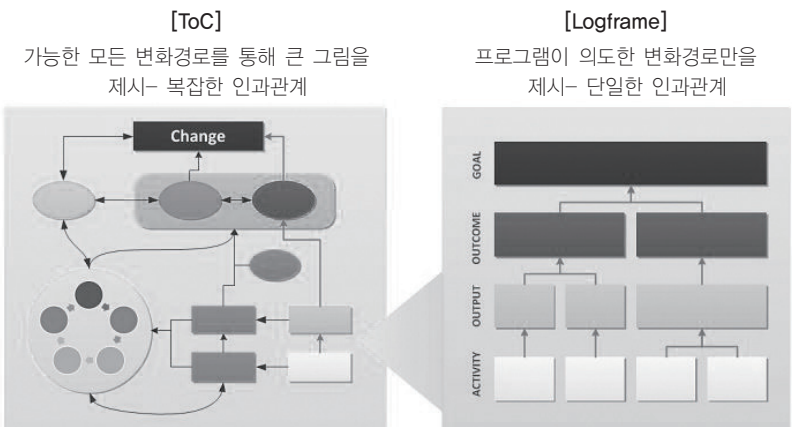
3. ToC와 Logframe

1960년대부터 개발협력사업 평가를 위한 여러 접근법들이 논의되었다. 현재 Logframe이나 ToC는 프로그램 이론(Program Theory) 접근방식에 기초한다. 프로그램 이론은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프로그램 설계자가 투입물(inputs)과 성과물(outcomes)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의도되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Funnell and Rogers, 2011). 따라서 동일한 접근법에서 출발한 ToC와 Logframe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두 방식 간에는 분명한 차이 역시 존재한다. 단순하게 말하면 ToC와 Logframe의 차이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그림 3〉. ToC는 각 성과별 하나 이상의 복잡한 인과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Logframe은 개입-산출물-목적-장기목표 간의 단일한 인과관계만을 인정한다. 이는 Logframe이 개입-산출물-목적-장기목표 간의 단일한 인과관계만을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ToC는 또한 Logframe과는 달리 여러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4행과 4열의 정형화된 틀만을 가진 Logframe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ToC는 4단계 이상 또는 이하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ogframe은 모니터링에 ToC는 평가에 더 유용하다.

또 다른 차이점은 ToC는 Logframe이 보여주지 못하는 중간고리(missing middle)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개별사업의 즉각적인 결과가 어떻게 다른 수준의 변화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과(outcomes) 및 영향(impact)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그림 3〉 ToC와 Log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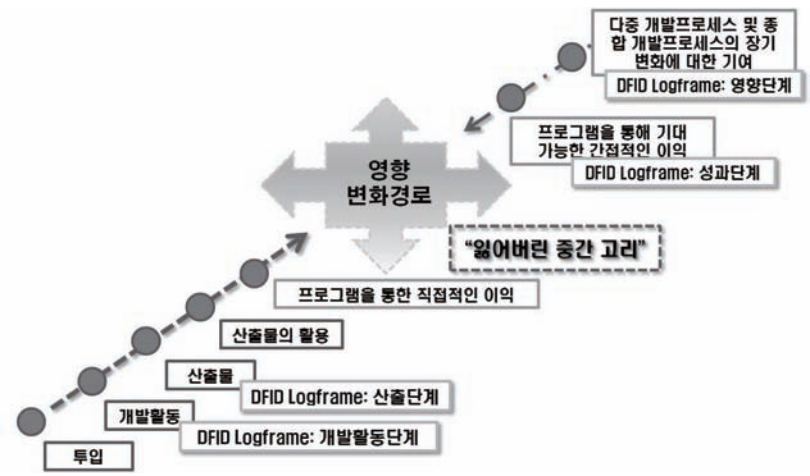


* 출처: http://www.tools4dev.org

Logframe은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logframe이 숨기고 있는 이 '잃어버린 중간고리'는 ToC적 사고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ToC를 통해 프로그램 결과물과 기여하고자 하는 개발 성과 간에 발생하는 사건연속(sequence of events)의 근간이 되는 연결고리와 반복 프로세스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을 분석하고 매핑함으로써 이 '잃어버린 중간고리'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즉, ToC는 위 그림의 '화살표들의 이면에서(behind the arrows)'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내고, 논리상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등의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ToC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및 평가와 모니터링을 보다 견고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Logframe의 '잃어버린 중간고리(missing middle)'



* 출처: 저자가 재작성. Isabel Vogel (2012), GIZ (2009), Douthwaite et al (2003)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방법의 핵심이 되는 '성과분석모형'과 그에 기반한 Logframe, 그리고 분석도구이자 접근법으로 활용되는 ToC의 정의와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Logframe은 널리 활용되는 유용한 성과관리도구이기는 하나 유일한 도구는 아니며 장점과 함께 많은 한계점도 갖고 있다. 사업계획이나 모니터링을 위해서 Logframe이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으나,

다른 공여기관들의 사례나 Logframe 자체의 특성을 고려 시, 심층 분석이나 평가, 정책개발, 개발환경 분석 등을 위해서는 인과관계간의 복잡성과 다양한 경로 확인이 가능한 ToC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ToC는 변화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여러 인과관계경로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KOICA는 국별정책이나 분야별 전략 수립시 ToC를 활용하여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성과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정책과 전략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아울러, 평가 수행시에도 ToC를 활용하여 평가분석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전사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박수영, 2009.『프로젝트관리와 평가: 프로젝트 기획 ·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론』. 성남:한국국제협력단

2. 국외문헌

Anderson, A. 2004. "Theory of Change as a Tool for Strategic Planning: A Report on Early Experiences." The Aspen Institute: Roundtable on Community Change. Retrieved from http://www.theoryofchange.org/pdf/tocII_final4.pdf

Batchelor, S. Fisher, C. and Beynon, P. 2013. "Learning about Theories of Change and Embedding Reflection." IDS Practice Paper in Brief15. Brighto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IDS). Retrieved from http://opendocs.ids.ac.uk/opendocs/bitstream/123456789/2996/1/PP%20InBrief%2015%20FINAL.pdf

Stein, D and Valters, C. 2012. "Understanding Theory of Chan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Existing Knowledge." JSRP Paper 1. The Justice and Security Research Programme(JSRP), the Asia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www.theoryofchange.org/wp-content/uploads/toco_library/pdf/UNDERSTANDINGTHEORYOFChangeSteinValtersPN.pdf

Sue C. Funnell, Patricia J. Rogers. 2011. Purposeful Program Theory: Effective Use of Theories of Change and Logic Models. San Francisco: Jossey-Bass/Wiley

Tapline, D. Cark, H. Clark, E. and Colby, D. 2013. "A Series of Papers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ories of Change Based on Practice in the Field." Theory of Change Technical Papers. Actknowledge. Retrieved from http://www.theoryofchange.org/wp-content/uploads/toco_library/pdf/ToC-Tech-Papers.pdf

Valters, C. 2014. "Theories of Chan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 Learing, or Accountability?" Retrieved from http://www.lse.ac.uk/internationalDevelopment/research/JSRP/downloads/JSRP17.Valters.pdf

Vogel, Isabel. 2011. "Review Report: Review of the use of 'Theory of Chan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tools4dev.org/resources/theory-of-change-vs-logical-framework-whats-the-difference-in-practice/

Weiss, C.H. 1995. Nothing as Practical as Good Theory: Exploring Theory-Based Evaluation for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for Children and Families.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World Bank. 2012. "Designing a Results Framework for Achieving Results: A How-to Guide." Washington D.C.: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EVACAPDEV/Resources/designing_results_framework.pdf

IV

KOICA 개발협력 자료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2.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 구독 목록
3. KOICA 2015년 3월~2015년 5월 발간물 목록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5.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6.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을 수집 · 정리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 · 관리 하고 있습니다.

ODA도서관은 개가제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 하시며 자료보유현황 및 열람시간,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자료검색, 자료 이용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보유 현황(2015년 5월 현재)

-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보고서: 8,763권
- 국내/국외 학술DB: 13종

※ 구독목록은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국내/국외) 구독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33,819권
- 비도서자료: 1,640점

2. 자료 열람시간

구분	시간	비고
평일(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1:50~12:5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3.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 직원: 열람, 대출, 복사 가능
- 외부이용자: 열람, 복사 가능

(단,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원문 공개파일은 외부이용자 모두 열람 및 출력 가능)

4. 자료 검색

-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 ODA도서관
- KOICA ODA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

5. 자료 이용문의

- 전화: 031-7400-618, 619
- 이메일: library@koica.go.kr

KOICA ODA도서관 2015년도 학술DB 구독 목록

학술DB 통합검색은 ODA도서관 → 자료검색 → '학술DB' 부분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번호	DB명		내용	비고
1	KISS	한국학술정보	국내 학회지, 학위논문 원문검색시스템으로 1,299개 학술기관의 학술지 및 논문들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2	DBpia	누리미디어	국내 학회, 협회 및 출판사 367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1,837여종의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3	Academic Search Premier	EBSCOhost ASP	ASP(Academic Search Premier)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교육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생물, 환경, 수학, 물리, 화학, 지리, 컴퓨터, 전기, 전자, 토목공학, 재료공학, 의학 등 광범위한 다학문분야(Multi-disciplinary) 원문 데이터베이스 학문 전분야에 걸친 14,100여종의 해외 학술저널 색인, 초록정보를 바탕으로 그 중 4,800여종의 저널에 대한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4	Business Source Premier	EBSCOhost BSP	BSP(Business Source Premier) 비즈니스 분야 연구정보원으로서 경영/경제/회계/금융/무역/행정 등 비즈니스 전반의 2,200여종의 학술저널 및 매거진을 비롯한 23,000여종의 출판물에 대한 원문 제공 전세계 200여 국가 1,000여종의 국가보고서를 비롯하여 5,600여종의 산업보고서, 시장보고서, Case Studies, Company Profiles등 폭넓은 연구정보 수록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5	JSTOR	JSTOR	주요 학술저널의 현재 및 과거자료에 대한 Archive 자료를 제공하며 최근 1~2년 전까지의 논문 원문을 이용할 수있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JSTOR 전체 옵션 중 'Art & Science Ⅶ(256종)', Business Ⅰ(69종), Business Ⅱ(83종)에 대한 학술지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6	ScienceDirect	ScienceDirect (World Development Journal)	Elsevier 발행자료인 'World Development' 저널 원문 기사 제공 2011년 Vol. 39, no. 1 부터 이용가능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7	Taylor & Francis Online	Taylor and Francis	Taylor & Francis 발간 저널 중 SSH(Social Science & Humanities) 분야의 1,196종 저널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8	Wiley Online Library	Wiley Online Library	Wiley 발간 저널 중 SSH(Social Science & Humanities) 분야의 436종 저널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9	IMF eLIBRARY	IMF eLibrary	IMF 발간물 온라인 서비스로 'Books and Analytical Papers', 'Periodicals and Reports',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IMF 'Statistics Collection' 부분을 통해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등 통계자료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번호	DB명		내용	비고
10	OECD iLibrary	OECD iLibrary	OECD Publishing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원문 구독 OECD Books(17종), Papers(16종), Statistics(34종), IEA Statistics(10종)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1	eLibrary	World Bank e-Library	World Bank에서 출판한 에너지, 국제, 사회, 경제개발에 관련 Books, Reports, Working Paper, Documents의 원문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2	OECD	OECD OLIS Net	OECD의 보고서, 출판물, 통계, 회의자료 등 주요 자료를 OECD 회원국 중 입증된 기관에게만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3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s	EIU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 정치, 국가 기본정보 및 분석 리포팅 서비스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열람가능	로그인 후 이용

KOICA 2015년 3월~2015년 5월 발간물 목록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1	제17회 KOICA 글짓기 공모전집: 더불어 사는 우리는 세계시민	ODA교육원	2015	한국국제협력단
2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재해방지를 위한 홍수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2차 사업형성조사 결과보고서 2015.5	기후환경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3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업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5.3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4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정비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5.4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5	베트남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구축 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2015.3	동남아시아1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6	Master Plan for Vietna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V-KIST) 2014.8	동남아시아1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7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결과보고서 2014.8	동남아시아1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8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건설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2014.8	동남아시아1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9	The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V-KIST) 2014.8	동남아시아1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10	몽골 울란바타르시 도시관리 효율화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2015.1	동북아태평양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1	솔로몬군도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2014.12	동북아태평양팀	2014	한국국제협력단
12	모잠비크 수자원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2015.2	동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3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 사례집: 2014 KOICA 민간단체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관협력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14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민관협력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15	KOICA, 영국문화원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과 개발협력 이야기	민관협력실	2014	한국국제협력단
16	방글라데시 개발협력 편람 2015.3	서남아시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7	Master Plan Nigeria e-Government 2020 Final Report, February 2015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8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서아프리카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19	2016년도 민관협력사업 안내서 I: 공모 원칙 및 기준 2015.4	시민사회협력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0	2016년도 민관협력사업 안내서 II: 사업운영지침 2015.4	시민사회협력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1	Post-2015체제의 ODA정의 현대화와 총공적개발지원 분석 연구 2015.4	연구개발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22	(2014) 월드프렌즈코리아 통합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5.1	월드프렌즈총괄팀	2015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대한민국 대개도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ODA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NGO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조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원조사업 관련 정보 수집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70%)하였으며, 이는 △원조관련 정보의 분산(41%),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름(26%),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 비공개(22%)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완료 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DA원조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NGO및 민간기업 등 ODA 유관기관 간 서로 원조정보를 등록, 조회, 평가, 검색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중복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 공유, 정보 Q&A, 커뮤니티 개설 및 이슈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자료로는 원조정책,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평가관련 정보, 선진원조 동향, 연구보고서, 국별, 지역별, 분야별 정보,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무상원조사업 수요조사를 동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할 예정으로, 우량사업에 대한 적기의 검토와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은 ODA 유관기관 간 원조정보 및 지식, 노하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방지 및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 선진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동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기관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아래의 팩스 번호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E-mail: oda@koica.go.kr
  FAX: 031-7400-658
- ODA원조정보 공유시스템: www.oda.go.kr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 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I. 『국제개발협력』 발간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II. 『국제개발협력』 원고게재 절차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논문이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1대를 동봉한다.

  Email: callforpapers@koica.go.kr

  Tel: (+82)31-740-0556 FAX: (+82)31-740-0682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461-833)

- 원고접수는 각 호의 원고마감일에 따른다.

호	개발협력이슈 주제	원고마감일
2015년 3호	개발협력의 혁신적 메커니즘	7월 24일(금)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I.원고 제출 및 게재

1.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제출 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 글이어야 한다. 단 제출된 원고가 편집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 발간한다. 매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하며, 매호의 원고마감일은 직전 호의 국제개발협력지에 별도 안내된다.

4. 원고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5. 원고 제출시 연구자는 영문 또는 국문초록이 포함된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원고를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전자메일(callforpapers@koica.go.kr)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다.

   전자메일: callforpapers@koica.go.kr
   전화: (+82)31-740-055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461-833)

6. 제출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비공개 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협력단에 귀속된다.

7. 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8.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9.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10.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대표저자와 공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

1) 원고는 표지, 목차, 표 또는 그림 일체를 제외한 기타 부분(참고문헌 산입)에 대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로 제한한다.

2)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원고분량의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한다.

2. 원고 구성

1) 원고는 표지, 국문(영문)요약, 주제어(3~5개),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구성한다.

2) 표지에는 논문제목, 목차,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 · 전화 · 팩스), 간단한 필자소개를 명기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3)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4)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5)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7)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 · ·” 과 “〈그림 1〉 · · ·”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삽입한다.

(2) 설명주는 “주:” 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4)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 한다.

8) 원고의 각 쪽에는 반드시 쪽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인 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한다.

3. 원고의 형식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2)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 · 절 · 항 · 목의 번호는 "Ⅰ.",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4. 저자명 표기

1)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 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5. 표 및 그래프 작성

(1)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2)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초과할 수 없다.

Ⅲ. 전거 표시 요령

1. 전거 표시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전거 표시 요령을 준용한다.

2.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이상백(1949: 23)…" ; [예2] "…라 했다(이상백, 1949: 23)."

(2)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밀스(Mills, 195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이상백 · 김채윤, 1966)"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 · 윤근섭 · 한상복, 1967)" ; "…(문승규 외, 1967)"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1999 출간예정)" ; "…(Lee, forthcoming)"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1) 국문저서나 간행문명은『 』, 신문제호는「 」, 논문제목은 " "로 둘러싼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 이상백 · 김채윤, 1996.『한국사회계층연구』. 민조사.
- 차종천. 1990a.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노동과 불평등』. 나남출판. pp.125-149.
- _____. 1990b.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pp.193-122.
-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1988.『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論社.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力移動." 森田桐郎 編,『國際勞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1-54.
- Beger, Peter. L., and Xinhuang Michael X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389-437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Samuel Leinhardt. San Francisco, CA: Jossy-Bass.
- Amsden, Alice H. 1989. Asia' 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인근달 역. 1990.『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 최재석. 1964. "한 · 일 · 중 동양 삼국의 동족 비교"『한국사회학』1(2): 88-99.
-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 Shin, Ho Hyun.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Krafcik, John F., and John Paul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The International Automotive Assembly Plant Study." Working Paper of 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 (IMVP),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 Kollock, Peter, and Marc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 베버, 막스(Weber, Max). 1990.『유교와 도교』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 · 히긴스 · 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혁래 · 박길성 · 유흥준 편.『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pp.195-210.
-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02-108

국제개발협력 2015년 제2호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인 김영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전략기획부 연구개발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461-833)
전 화 031)740-0556
팩 스 031)740-0682
홈 페 이 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다인스케치

[무단복제를 금함]

ISSN 2093-212X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02-108

ISSN 2093-212X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